

발간등록번호

11-1550000-000095-01



# 한국의 세계유산



문화재청



표지설명 : 종묘 정전  
종묘는 사적 제125호로 지정 관리되고 있으며,  
1995년 12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되었다.

# 문화유산헌장



문화 유산은 우리 겨레의 삶의 예지와 숨결이 깃들여 있는 소중한 보배이자 인류문화의 자산이다.

유형의 문화제와 함께 무형의 문화제는 모두 민족 문화의 정수이며 그 기반이다.

더욱이 우리의 문화 유산은 오랜 역사 속에서 많은 재난을 견디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므로 문화 유산을 알고 찾고 기꾸는 일은 곧 나라 사랑의 근본이 되며 겨레 사랑의 바탕이 된다.

따라서 온 국민은 유적과 그 주위 환경이 파괴·훼손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문화유산은 한번 손상되면 다시는 원상태로 돌이킬 수 없으므로 선조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그대로 우리도 후손에게 온전하게 물려 줄 것을 다짐하면서 문화유산 헌장을 제정한다.

1. 문화 유산은 원래의 모습대로 보존되어야 한다.
1. 문화 유산은 주위 환경과 함께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1. 문화 유산은 그 가치를 재획로 따질 수 없는 것이므로 결코 파괴·도굴되거나 불법으로 거래되어서는 안 된다.
1. 문화 유산 보존의 중요성은 가정·학교·사회교육을 통해 널리 일깨워져야 한다.
1. 모든 국민은 자랑스러운 문화 유산을 바탕으로 친린한 민족 문화를 계승·발전 시켜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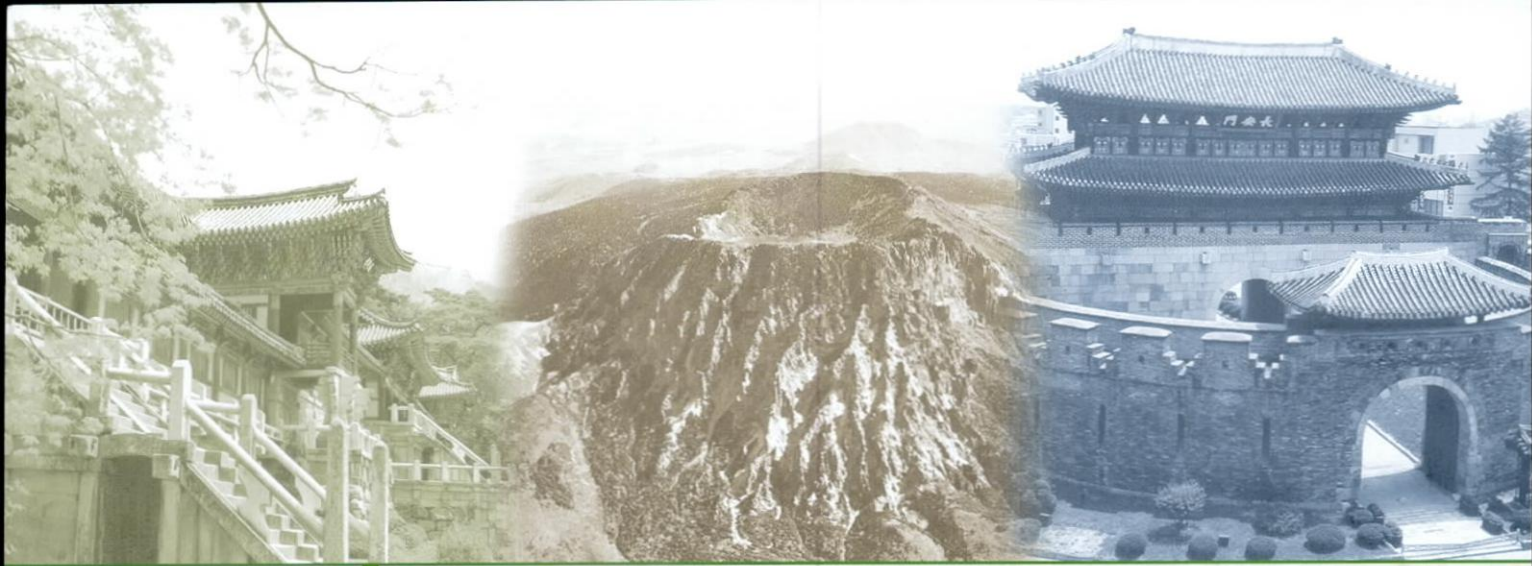
1997년 12월 8일



# 목 차

<b>1. 개요</b>	2
<b>2. 세계유산</b>	
- 석굴암 · 불국사	6
- 해인사 장경판전	10
- 종묘	14
- 창덕궁	18
- 수원화성	22
- 경주역사유적지구	26
- 고창 · 화순 · 강화 고인돌 유적	30
<b>3. 세계기록유산</b>	
- 훈민정음	36
- 조선왕조실록	40
- 직지심체요절	44
- 승정원일기	48
<b>4. 세계무형유산</b>	
-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	54
<b>5. 세계유산 잠정목록</b>	
- 삼년산성	60
- 공주무령왕릉	62
- 강진도요지	64
-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66
- 안동하회마을	68
- 월성양동마을	70
- 남해안일대 공룡화석지	72
- 제주도 자연유산지구	74





## 개 요

**유**네스코가 추진하는 사업에는 '세계문화및자연유산보호에관한협약'에 따라 추진하는 세계유산사업과 자체 프로그램 사업으로 추진하는 세계기록유산사업, 세계무형유산사업이 있다.

우리나라는 1988년 '세계문화및자연유산보호에관한협약'에 가입한 이래 '95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7건의 세계문화유산을 등록하였고, 4건의 세계기록유산 등록, 1건의 '세계무형유산'을 선정되게 하였다.

유네스코는 인류문명과 자연사에 있어 보편적·세계적 가치를 지닌 유산을 인류공동의 노력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1972년 '세계문화및자연유산보호에관한협약'을 채택하고 이에 따라 세계유산위원회(WHC)를 정부간위원회로 구성하여 세계유산을 지정 관리하고 있다. 세계유산이란 전 인류가 공동으로 보존하고 후손에게 전수해야 할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유네스코 세계유산일람표에 등록된 유산을 말하며 이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 3종류가 있다. 세계유산으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유산의 진정성과 가치의 탁월성 및 국가의 관리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등재신청, 서류심사,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또는 국제자연보호연맹(IUCN)의 현지조사, 1·2차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세계유산위원회 총회에서 최종 결정되기까지 2년여의 기간이 걸린다. 세계유산에 등록함으로써 문화재의 훼손 방지와 영구보존을 위한 유네스코의 기술자문과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고, 우리유산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아 국내외에 홍보·선양함으로써 국제적 관광명소로 발돋움 할 수 있다. 세계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먼저 잠정목록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향후 세계유산으로 정식 등재신청하기 위해 제출한 예비목록을 잠정목록이라 한다.

세계기록유산사업은 유네스코에서 도서관 및 문서고 등에 보관된 위협에 처한 인류의 기록물을 보존하고 신기술의 응용을 통해 값진 소장문서를 세계적으로 보존·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2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이다. 세계기록유산이란 각 나라의 주요문서, 필사본, 구비전승자료, 시청각 자료 등 도서관, 문서고 등에 보관된 세계적 보존가치가 있는 값진 기록물로서 세계기록유산에의 등재를 통해 그 보존관리에 대한 유네스코의 기술적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동 유산에 대한 전세계적 인식과 보존 필요성 증진, 유네스코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홍보효과를 얻을 수 있다.

세계무형유산은 소멸위기에 처한 인류구전 및 무형문화유산을 걸작으로 선정하여 각 국의 문화적 다양성과 전통성을 보존하기 위해 유네스코에서 '9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세계무형유산이란 언어, 문학, 음악, 춤, 놀이, 의식, 공예 등 인간의 창조적 재능의 걸작으로서 뛰어난 가치를 지닌 문화사회의 전통에 근거한 구전 및 무형유산으로서, 이의 선정을 통해 동 유산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홍보하고, 정부, 비정부 기관 등으로 하여금 동 유산을 확인·보호·증진하도록 고무하며, 그에 대한 공공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등록한 세계유산에는 석굴암·불국사, 종묘, 해인사 장경판전, 수원화성, 창덕궁, 경주역사 유적지구, 고창·화순·강화 고인돌 유적이 있으며, 세계유산 잠정목록에는 삼년산성, 공주 무령왕릉, 강진 도요지,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안동하회마을, 월성양동마을, 남해안일대 공룡화석지, 제주도 자연 유산지구가 있다.

세계기록유산에는 훈민정음, 조선왕조실록, 직지심체요절, 승정원일기가 있으며, 세계무형유산에는 종묘 제례 및 종묘제례악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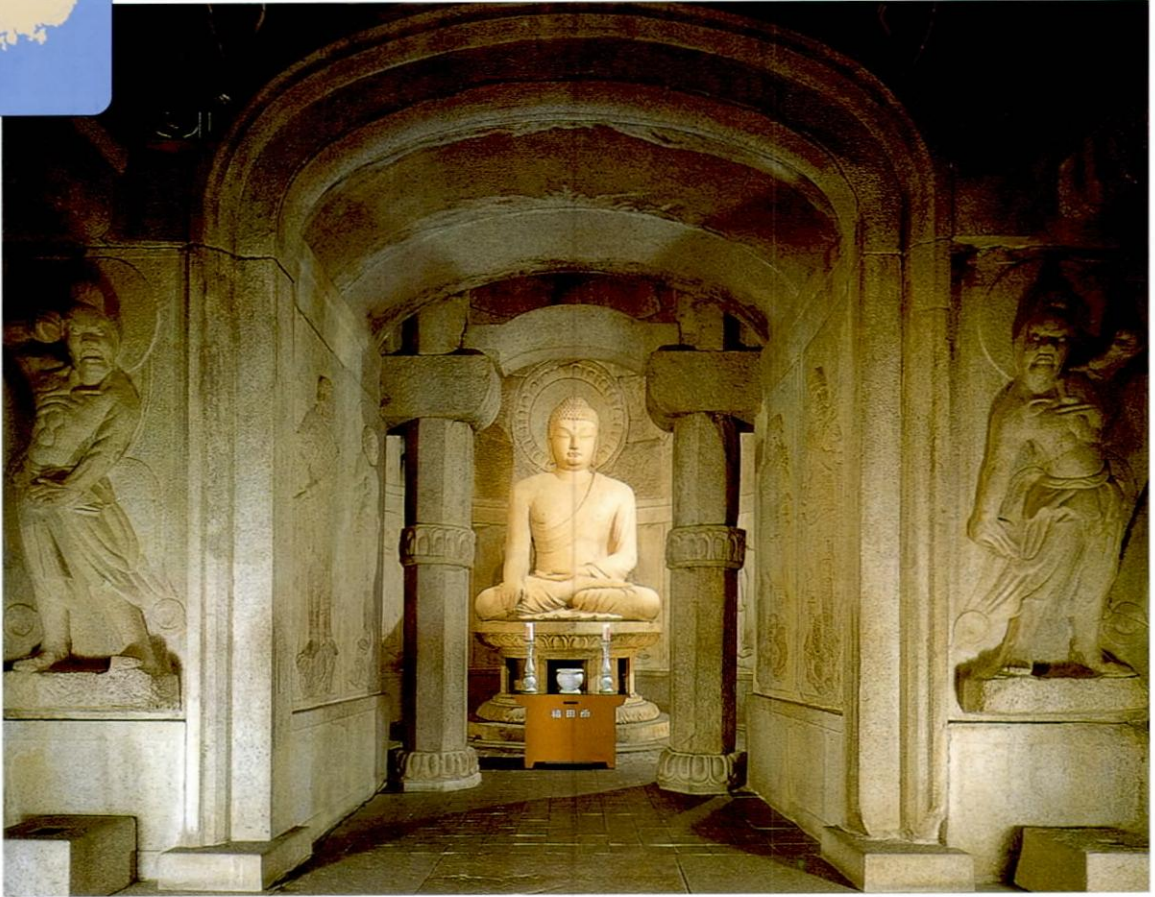
# 세계유산



석굴암 · 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  
창덕궁  
수원화성  
경주역사유적지구  
고창 · 화순 · 강화 고인돌 유적



# 석굴암 · 불국사



▲ 석굴암 내부

석굴암은 서기 751년 신라 경덕왕때 당시 재상이었던 김대성이 창건하기 시작하여 서기 774년인 신라 혜공왕때 완공되었으며 건립 당시에는 석불사로 불리었다. 8세기 중엽 통일신라 문화의 황금기에 건립된 석굴암은 불교사상과 매우 발달한 수리적 원리를 바탕으로 한 고도의 건축 기술, 뛰어난 조형 감각으로 완성되었다. 우리가 석굴암에서 느끼는 장엄미와 숭고미는 이러한 바탕과 그 속에 내재하는 조화율에 있다 하겠다. 석굴암은 석가모니가 정각 즉, 깨달음을 얻은 순간을 가시적인 건축과 조각으로

재현한 것이며, 조각에 있어서도 인위적인 기교나 부자연스러움없이 생명력이 넘치며 원숙한 조법과 탁월한 예술성이 돋보인다. 절대적인 경지인 정각을 통해 인간 석가모니는 형이상학적 존재인 석가여래가 되고, 속세는 법계라는 이상향이 된다. 석굴암 석굴은 국보 제24호로 지정 관리되고 있으며 석굴암은 1995년 12월 불국사와 함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

경주 토함산 정상에 못 미친 깊숙한 곳에 동해를 향해 앉아 있는 석굴암은 완벽하고 빼어난 조각과 독창적

건축으로 전세계에 이름이 높다. 인공으로 석굴을 축조하고 그 내부공간에도 본존불을 중심으로 총 39체의 불상을 조각하였다. 석굴암은 전실, 통로, 주실로 이루어졌다. 방형 공간인 전실에는 팔부중상과 금강역사상이 있고, 사천왕상(四天王像)이 있는 좁은 통로를 지나면 궁륭(Dome)천정으로 짜여진 원형공간의 주실이 나온다. 주실의 중앙에는 석가모니 대불이 있고, 벽면에는 입구에서부터 범천상(梵天像)과 제석천상(帝釋天像), 보현(普賢) 문수(文殊)보살상, 그리고 십대제자상(十大弟子像)이 대칭을 이루도록 조각돼 있다.

일찍이 당나라의 현장(玄藏法師 A.D602~664)이 17년간 중앙아시아와 인도의 성지를 순례하고 지은 풍물지리지 성격의 『대당서역기(大唐西域記)』에는, “석가모니가 정각을 이룬 바로 그 자리에 대각사(大覺寺)가 세워져 있고, 거기에 정각을 이룬 모습의 불상이 발을 괴어 오른발 위에 엮고, 왼손은 살 위에 뉘었으며 오른손을 늘어 뜨리고 동쪽을 향해 앉아 있었다. 대좌의 높이는 당척 4척2촌이고 넓이는 1장 2척5촌이며 상의 높이는 1장1척5촌, 양 무릎폭이 8척 8촌, 어깨폭이 6척2촌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석굴암의 본존불 크기와 이 기록이 일치하고 있는데, 현장이 보았던 대각사의 그 불상은 현존하지 않고 있어 석굴암에 역사적 무게를 더해주고 있다.

천체를 상징하는 둥근 공간에 이르면 한가운데에 높이 350cm의 당당하고 부드러운 모습을 지닌 석가모니 대불이 동해를 향해 앉아 있다. 얼굴과 어깨를 드러낸 옷의 주름에 생동감이 있어 불상 전체에 생명감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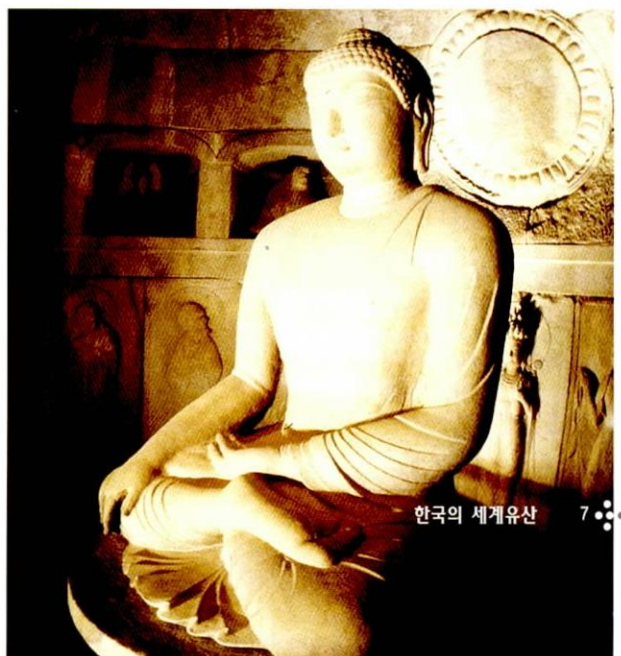
넘친다. 깊은 명상에 잠긴 듯 가늘게 뜬 눈과, 얇은 미소를 띤 붉은 입술, 풍만한 얼굴은 근엄하면서도 자비로운 표정을 짓고 있다. 손모양은 항마촉지인(降魔觸地印)으로 왼손은 선정인(禪定印)을 하고 오른손은 무릎에 걸친 채 검지손가락으로 땅을 가리키고 있다. 석가모니가 큰 깨달음을 얻어 모든 악마의 방해와 유혹을 물리친 승리의 순간, 즉 깨달음을 얻은 모습을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성도상(成道像)이라고 한다.

감실은 주실에서의 위치로 보아 지상계와 천상계의 중간을 뜻한다. 이는 교리적인 면에서 보면 보살이 각자(覺者)인 여래와 무명(無明)중생의 중차적인 존재라는 점과 잘 어울린다. 미륵보살상의 오른쪽 어깨, 손목, 오른쪽 무릎으로 이어지는 직삼각형이 안경감을 주는 반면 세운 무릎, 비스듬히 엮은 팔, 숙인 얼굴이 그리는 곡선은 변화와 운동감을 주고 있다. 전실 벽면에 있는 8구의 팔부중상은 무사의 성격을 띠고 불법(佛法)을 수호하는 여러가지 모습의 신들이며, 치마를 입은 금강역사상 또한 불법을 수호하는 한쌍의 수문장으로서 상체의 근육이 발달한 용맹스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 금강으로 만든 방망이를 들고 있다하여 금강역사라 칭했다.

석가모니대불이 앉아 있는 곳인 둥근 주실 뒷벽 가운데 가장 깊은 곳에 숨어 있다 나타나는 십일면 관음보살상(十一面觀音菩薩像)의 아름다운 자태는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머리둘레에 열구의 얼굴이 화려하고 섬세하게 조각되어 눈길을 끄는데, 약간의 미소를 머금은 표정, 화려하게 전면을 장식한 영락(瓔珞 : 구슬이나 귀금속을 꿰어 만든 장식구) 장식,

▼ 사천왕상

▼ 석가여래좌상





▲ 십일면관음보살상

유려하게 흘러내린 천의(天衣), 손가락 발가락의 미묘한 움직임, 왼손은 한송이 연꽃이 꽂혀있는 병을 들고 오른손은 내려서 영락을 잡고 정면관의 자세로 서있는 모습에서 화려함과 원숙함을 느끼게 한다.

토함산 서쪽 중턱의 경사진 곳에 자리한 불국사는 심오한 불교사상과 천재 예술가의 혼이 독특한 형태로 표현된 기념비적인 예술품이다. 불국사는 신라인이 그린 불국, 이상적인 피안의 세계를 지상에 옮겨 놓은 것으로 범화경에 근거한 석가모니불의 사바세계와 무량수경에 근거한 아미타불의 극락세계 및 화엄경에 근거한 비로자나불의 연화장 세계를 형상화한 것이다. 불국사의 건축구조를 살펴보면 크게 두 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 하나는 대웅전을 중심으로 청운교, 백운교, 자하문, 범영루, 자경루, 다보탑과 석가탑, 무설전 등이 있는 구역이고 다른 하나는 극락전을 중심으로 칠보교, 연화교 안량문 등이 있는 구역이 있다. 불국사 전면에서 바라볼 때 장대하고 독특한 석조구조는 창건 당시 8세기 유물이고 그 위의 목조건물은 병화로 소실되어 18세기에 중창한 것이며, 회랑은 1960년대에 복원한 것이다. 불국사의 석조구조는 길고 짧은 장대석, 아치석, 둥글게 초출(彫出)된 기둥석, 난간석 등 잘 다듬은 다양한 형태의 석재로 화려하게 구성되었다.

불국사는 사적·명승 제1호로 지정 관리되고 있으며 불국사내 주요 문화재로는 다보탑(국보 제20호), 석가탑(국보 제21호), 청운교와 백운교(국보 제23호), 연화교와 칠보교(국보 제22호), 금동아미타여래좌상(국보 제27호), 비로자나불(국보 제26호) 등이 있다.

불국사에 함축된 불교사상을 살피기 위해서 건축구조를 살펴보면 불국사는 크게 대웅전과 극락전 등의 목조건물과 이를 받치고 있는 석단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석단은 그 아래와 위의 세계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석단 위는 석가의 세계인 불국이고, 그 밑은 불국에 이르지 못한 중생의 세계를 나타낸다. 석단의 멋은 소박하게 쌓아올린 거대한 돌의 자연미와 대칭적으로 병렬된 2단의 석주에 있으며, 석단은 크고 작은 돌들을 함께 섞어 개체의 다양성을 나타내고, 굵고 굳센 돌기둥과 돌띠로 견고한 통일과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석단은 불국 세계의 높이를 상징함과 동시에 강건함을 상징하고 있다.

극락세계를 상징하는 극락전의 안양문으로 오르는 연화교 칠보교는 자하문으로 오르는 청운교 백운교와 모습이 비슷하지만 경사를 훨씬 완만하게 처리하여 부드럽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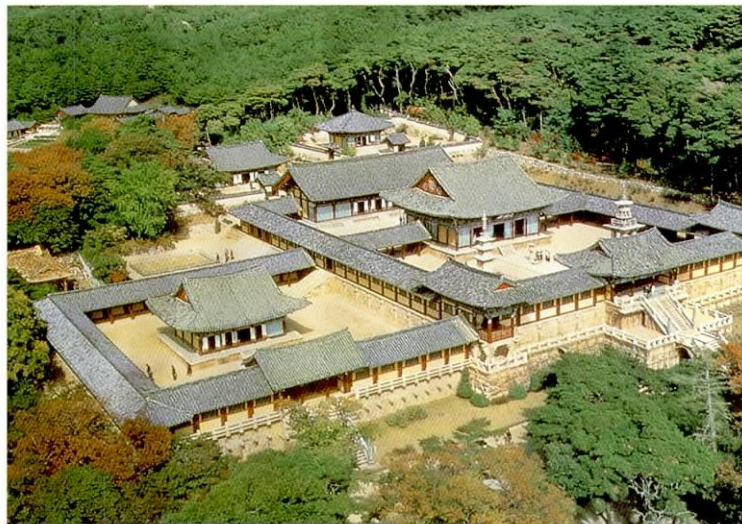
온화한 느낌을 준다. 연화교는 돌계단에 연꽃잎을 새기고 중앙에 바둑판 모양의 무늬를 이어 놓았으나, 칠보교는 연꽃조각이 없으며, 계단의 양쪽 난간에 정교하게 다듬은 돌기둥 네 개를 세우고 그 사이를 둥근 돌난간으로 연결했다. 극락세계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뜻으로 지은 안양문을 지나면 아미타불이 있는 서방의 극락정토를 상징하는 극락전에 이르며, 극락전 안에는 높이 1.68m의 금동아미타여래좌상이 있다.

석가탑과 다보탑은 불국사의 사상 및 예술의 정수로서, 영원한 법신불인 다보여래와 보신불인 석가모니 불이 이곳에 상주한다는 깊은 상징성을 가진 탑이다. 다보탑은 불국사 대웅전 앞 동쪽에 높이 10.4m의 4층탑으로 다보불탑 또는 칠보탑이라고도 하며, 정사각형의 기단위에 정교하게 다듬은 여러 형태의 석재를 목조건축처럼 짜맞춘 것으로, 복잡하고 화려한 장엄미, 독특한 구조와 독창적인 표현법이 돋보이는 건축물이다. 석가탑은 대웅전 앞 서쪽에 다보탑과 마주 서있는 높이 8.2m의 3층탑으로 무명탑이라고도 하며 기단부나 탑신부에 아무런 조각이 없어 간결하고 장중한 멋이 있으며, 각 부분의 비례와 전체의 균형이 알맞아 극히 안정된 느낌을 주고 있다.

불국사의 석조구조는 길고 짧은 장대석, 아치석, 둥글게 조출(彫出)된 기둥석, 난간석 등 잘 다듬은 다양한 형태의 석재로 화려하게 구성되었다. 이러한 석조 구조는 목조건물을 위한 기단인 동시에 상당 부분이 목조건축을 석조구조물로 인용하여 축조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무설전 뒤에 있는 비로전과 관음전은 석조구조없이 세운 것이며, 극락전 안양문의 석축기단이 단층이라면 대웅전의 자하문 석축기단은 중층



▲ 불국사 근경(연화교, 칠보교)



▲ 불국사 전경

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불교사상의 석가세계와 중생 세계를 구별하여 표현하기 위한 의도적 설계라고 할 수 있다.



# 해인사 장경판전



▲ 해인사전경

경상북도와 남도를 가르면서 일대의 지맥을 형성한 가야산맥에는 우두산으로도 불리는 상왕봉을 중심으로 원기봉 남산 두리봉 비계산 등이 솟아 있고, 원시림으로 덮인 수려한 계곡들이 있다. 그 산자락에 자리한 해인사는 풍수지형의 활용으로 뛰어난 명찰이다. 해인사(海印寺)는 신라 애장왕 3년(802)에 왕후의 불치병을 법력으로 치료해 준데 대한 보은의 뜻으로 창건했다고 전하는 사찰이다. 해인사가 우리 민족의 가장 소중한 문화유산 중 하나인 고려대장경을 600년 가까이 보존하고 있는 것도 가야산의 뛰어난 형승과

아울러 전쟁시에는 길에서 제외될 수 있는 외지(外地)이며 적군이 들어올 경우 방어하기 쉬운 협곡으로만 연결된 지형이기 때문이다.

해인사 장경판전은 고려대장경 경판 8만여장을 보관하는 보고로서 해인사의 현존 건물중 가장 오래된 건물이다. 정면이 15칸이나 되는 큰 규모의 두 건물을 남북으로 나란히 배치하여 남쪽의 건물을 수다라장, 북쪽의 건물을 법보전이라 하며 동쪽과 서쪽에 작은 규모의 동·서사간판전이 있다. 건물은 간결한 방식으로 처리하여 판전으로서 필요한 기능만을 충족시켰을

뿐 장식적 의장을 하지 않았으며, 전 후면 창호의 위치와 크기를 달리하여 통풍과 방습 효과, 그리고 실내 적정온도를 유지하도록 하였고, 판가의 진열장치 등이 매우 과학적이며 합리적으로 되어 있는 점은 경관이 지금까지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는 중요한 요소의 하나라고 평가받고 있다.

장경판전의 정확한 창건연대는 알려져 있지 않으나 조선 세조 3년(1457) 어명으로 판전 40여칸을 중창하였고, 성종 19년(1488) 학조대사가 왕실의 후원으로 30칸의 대장경 경각을 중건한 뒤 보안당이라 했다는 기록이 있다. 광해군 14년(1622)에 수다라장, 인조 2년(1624)에는 법보전을 중수하였다. 장경판전은 가야산 중턱의 해인사에 위치한 관계로 서기 1488년 조선초기에 건립된 후 한 번도 화재나 전란 등의 피해를 입지 않았으며, 보존 가치가 탁월한 고려대장경이 고스란히 간직되어 있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장경판전은 세계유일의 대장경판 보관용 건물이며, 해인사의 건축기법은 조선초기의 전통적인 목조건축 양식을 보이는데 건물자체의 아름다움은 물론, 건물내 적절한 환기와 온도 습도조절 등의 기능을 자연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 판전에는 81,258장의 대장경판이 보관되어 있으며, 글자수는 무려 5천2백만 자로 추정되는데 이들 글자 하나하나가 오자 탈자없이 모두 고르고 정밀하다는 점에서 그 보존가치가 매우 크며, 현존하는 대장경중에서도 가장 오랜 역사와 내용의

완벽함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지니고 있는 문화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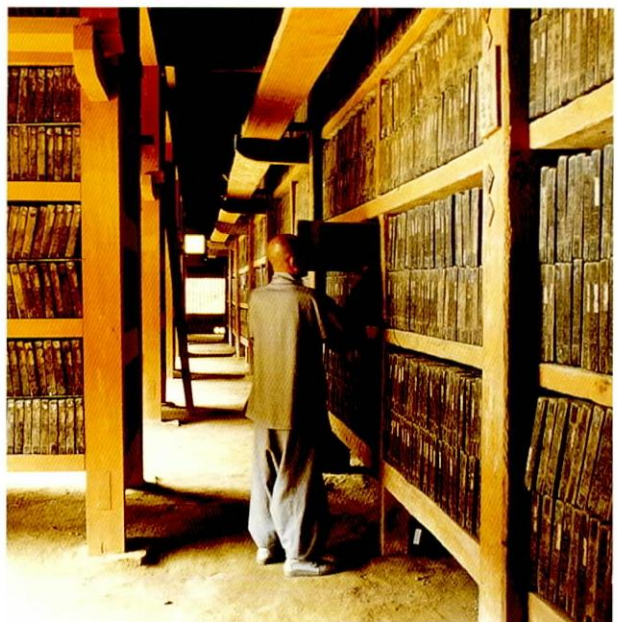
대장경판은 고려 고종때 대장도감에서 새긴 목판이다. 대장경은 경(經)·율(律)·논(論)의 삼장(三藏)으로서 불교경전의 총서를 가리키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해인사 대장경판은 고려시대에 판각되었기 때문에 고려대장경이라 하며 또한 판수가 8만여판에 이르고 8만4천 범문을 수록했다 하여 8만대장경이라고도 한다. 고려 현종(1009~1031)때 새긴 초조대장경은 몽고의 침입에 불타버려 다시 새겼다하여 재조대장경이라 일컫기도 한다. 이 대장경판은 초조대장경이 불타버려서 고려 고종 19년(1232)에 몽고의 침입을 불력으로 막기 위하여 강화도로 수도를 옮기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장도감을 설치하여 대장경판을 다시 조각하기 시작하였다. 대장경판은 당초 경상남도 남해에서 판각하여 강화도 대장경판당으로 옮기고 보관하였으나 고려 말 왜구의 빈번한 침범으로 조선 태조때인 1398년 현재의 해인사 장경판전에 옮겨 보관 중이다. 이 대장경판은 개태사의 승통인 수기(守其)가 북송판과 거란본 및 우리의 초조대장경을 대조하여 오류를 바로잡은 대장경이다.

대장경판은 부패와 충해를 방지하는 견고한 재질의 목재를 오랫동안 바닷물에 담갔다가 만들었다. 이것을 다시 소금물에 삶아서 그늘에 말린 다음 그위에 구양 순체로 동일하게 새겼는데, 판이 뒤틀리지 않도록 각목으로 끝을 마무리하고 옷칠을 한 다음 네 귀퉁이를 동판

▼ 수다라장의 외벽



▼ 판가배열모습



으로 아름답게 장식했다. 경판의 규모는 세로 24cm, 가로 70cm, 두께 3cm 정도의 크기에 무게 2,600~3,700g이다. 판면에는 한 면에 23행, 1행에 14자씩 앞뒤 양면에 일정한 배열로 글자를 새겼으며 판의 뒷면 끝에는 경의 이름과 장수, 천자문 차례의 함호를 새기고, 좌우 끝의 각목에도 동일한 표시를 남겼다. 이렇게 제작된 81,258판 1,511부 6,802권이 해인사에 봉안되어 있다.

이규보가 지은 『대장각판군신기고문』에 보면 현종 2년(1011)에 거란병의 침입때 대장경을 새겨 거란병이 물러갔음을 상고하고, 몽고의 침입으로 이 대장경판이 불타버려 다시 새기니 몽고의 침입을 불력으로 물리치게 하여 달라는 염원을 기록하고 있다. 대장경판은 고종 24년(1237)부터 35년(1248)까지 12년 동안 판각하였는데 준비기간을 합치면 모두 16년이란 기간이 걸려 완성된 것이다. 해인사 동 서사간판전에 봉안되어 있는 불교경전은 국가에서 새긴 고려대장경판과는 달리, 고려시대에 사찰에서 새긴 고려각판이다. 팔만대장경은 불교의 경·율·논 삼장을 집대성하였기때문에 세계 불교연구의 귀중한 문헌으로, 이 대장경은 일본이 신수 대장경을 만들 때 표준으로 삼았으며, 중국에도 역수입 되고,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서구 선진국에도

전해져 세계불교 연구에 매우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해인사 장경판전은 국보 제52호로 지정 관리되고 있고, 소장 문화재로서는 대장경판 81,258판(국보 제32호), 고려각판 2,725판(국보 제206호), 고려각판 110판(보물 제734호)이 있으며, 1995년 12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

경판 보관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경판의 변형 방지를 위해 온도, 습도, 통풍 등 실내 기후의 조절이 중요하다. 건물 내부의 통풍이 원활하고, 계절과 밤낮에 따른 습도와 온도의 변화가 적어야 할 뿐 아니라 항상 일정한 공기의 흐름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판전의 창은 자연적인 기후 조절로 해결하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판전 내부의 온도는 외부에 비해 0.5~2℃ 낮게 유지되며 습도는 5~10% 낮은 상태로 변한다. 또한 판전 내부의 흙바닥 속에 숯과 찻가루와 소금을 모래와 함께 차례로 넣음으로써 실내 습도가 높을때는 습기를 빨아들이고, 건조할 때는 습기를 내뿜으며 자연적으로 습도가 조절되도록 했다. 이것은 경판의 변형을 줄이는 동시에 해충의 침입을 막는 효과도 있다.

장경판전은 자연조건을 최대한 이용해 통풍과 방습 등을 완벽하게 해결하고 있다. 판전 건물은 해발



▲ 법보전과 수다라장

1430m의 가야산 중턱 655m고도에 서남향으로 앉아 있다. 해인사에 부는 바람의 주방향인 동남향과 달리 서남향으로 건물을 앉힘으로써 남쪽 아래에서 타고 올라오는 습기찬 바람이 판전을 타고 옆으로 비스듬히 스쳐 지나게 한 것이다. 주변 어느 곳에도 영구음영이 생기지 않는 것이 판전의 일조환경 조절에 중요한데, 이에 알맞은 좌향이 바로 서남향이다. 또한 판전이 서있는 지점은 계곡에서 불어 올라온 공기의 습도가 어느정도 떨어지는 고도이며 건물 내부의 습도 유지, 원활한 통풍과 직결된다. 판전은 이와 같이 통풍과 습도 조절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상적 조건을 갖춘 곳에 자리하고 있다.

경관을 보관한 판가(板架) 역시 매우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진열돼 있다. 원래 판전 내부에는 다섯 단으로 된 판가가 가운데와 뒤쪽에만 벽면과 평행을 이루며 두 줄로 길게 서 있었다. 벽을 따라 비워둔 앞쪽 공간은 인경 작업을 위한 곳이다. 건물 앞면의 아래 창이 큰 것은 통풍뿐 아니라 인경 작업시 충분한 채광을

얻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판가 각 단에 경판을 두 줄씩 세로로 쌓아두면 마구리 부분보다 얇은 경판과 경판 사이에 공간이 생김으로써 창을 통해 들어온 공기가 건물 내부에서 앞뒤로 흐르고, 판가에서 경판과 경판 사이를 통해 아래위로 흐르기 때문에 판전 내부의 온도와 습도는 자연 고르게 유지되는 것이다.

판전의 벽면 수다라장과 범보전의 각 벽면에는 위 아래로 여러 개의 창을 냈는데, 앞면의 창은 윗것이 작고 아랫것이 크며, 뒷면 창은 아랫것이 작고 윗것이 크다. 이는 건물 뒤쪽의 산에서 내려오는 건조한 공기가 큰 창을 통해 흘러 들어오게 하는 한편, 앞쪽의 큰 창을 아래에 두어 습한 공기를 차단함과 동시에 건물 안으로 들어온 공기가 실내에 고루 퍼진 후 빠져나가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과학적 처리는 대장경판이 지금까지 온전하게 보존되어 온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로 평가 받고 있다. 판전 건물의 외관 및 배치 방식에 깔린 독특한 구성미와 아름다움은 이러한 과학성과 합리성에 기초한 것이다.

▼ 통풍창과 판가



▼ 팔만대장경판





# 종묘



▲ 정전과 월대

종묘는 조선시대 역대 왕과 왕비 및 추존된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신 사당으로서 가장 정제되고 장엄한 건축물 중의 하나이다. 종묘는 극도로 절제된 건축미와 엄숙한 제례의식, 유현한 분위기가 감도는 영원의 공간이다. 종묘는 제례를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화려해서는 안되었다. 따라서 종묘의 모든 건축은 지극히 단순하고 절제되어 있다. 장식들이 과감히 생략된 조형과 단순하고 절제된 건축구성은 종묘를 자체 완결적이고, 기품있는 건축으로 완성할 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면 깊은 곳에 감춰진 상징적 의미까지

읽게 한다. 이것은 마치 일상적인 시간의 흐름을 초월하여 죽은 자와 산 자가 한데 어울리는 영적인 교류를 가능케 하는 듯 하다.

종묘는 태조 3년(1394) 10월 조선 왕조가 한양(서울)으로 도읍을 옮긴 그해 12월에 착공하여 이듬해 9월에 완공하였다. 조선 왕조를 연 태조 이성계는 1392년에 개성에서 왕위에 오른 후부터 계룡산, 무악 등을 새 도읍지로 물색하다가 태조 3년에 한양을 새 도읍지로 결정하고, 그해 천도를 단행했다. 천도 이후 태조는 신도읍지 한양에 먼저 종묘를 짓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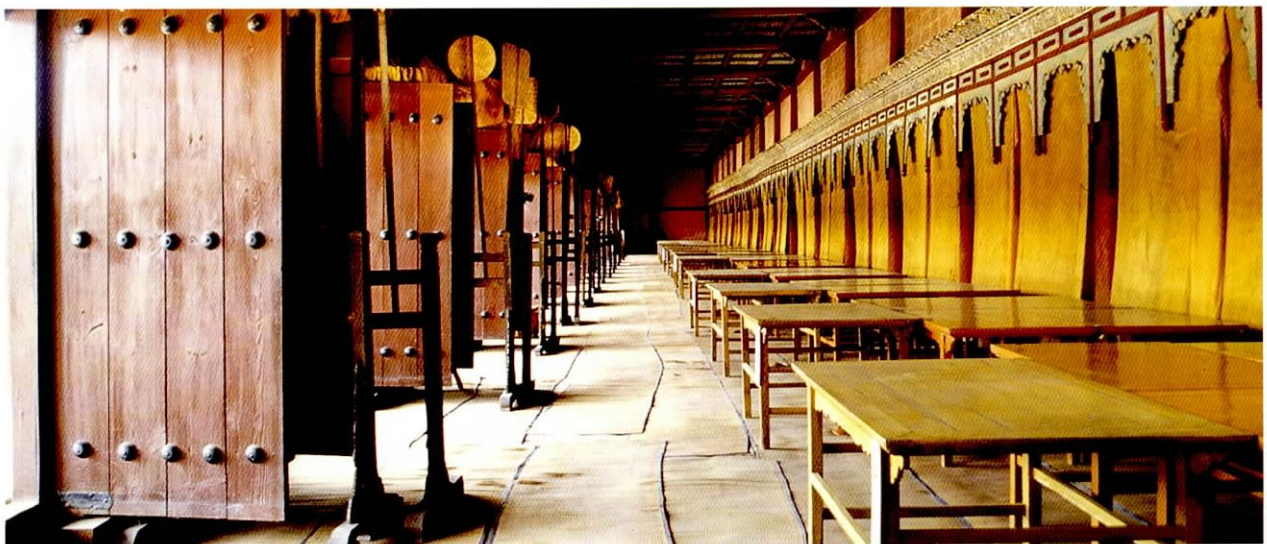
궁궐을 지은후 성벽을 쌓는 순서로 도성을 건설했다. 종묘는 태조 3년 12월에 건축하기 시작하여 다음해 9월에 완공하여 태묘(太廟)라 칭하였다. 세종 1년(1419)에 태묘 서쪽에 별묘를 건축하기 시작하여 영녕전이라 칭하고 세종 3년(1421) 10월에 완공하였다. 종묘는 “임금이 궁궐을 중심으로 남쪽을 향했을 때 왼쪽에 종묘, 오른쪽에 사직을 둔다”고 하는 『주례(周禮)』원칙에 따라 경복궁의 왼쪽에 있다. 현재 종묘 경내에는 정전을 비롯하여 별묘인 영녕전과 전사청, 재실, 향대청 및 공신당, 칠사당 등의 건물이 있다. 종묘는 사적 제125호로 지정 관리되고 있으며, 정전(국보 제227호), 영녕전(보물 제821호), 종묘제례악(중요무형문화재 제1호), 종묘제례(중요무형문화재 제56호) 등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종묘는 1995년 12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되었다.

종묘의 건립은 유교의 조상숭배 사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유교문화권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혼(魂)과 백(魄)으로 분리되어 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형체인 백은 땅으로 돌아간다는 이원적 사고가 일반화되어 있다. 이러한 생각은 죽은 조상의 혼과 백을 위해 각각 사당과 무덤을 만들게 했다. 사당은 보이지 않는 혼을 모셔 제사를 지내는 곳이고, 무덤은 백을 묻어 모시는 곳이다. 특히 유교에서는 죽은 조상의 혼을 신주(神主)로 받들어 제례를 올리며 후손들의 정신적 지주로 삼았다. 조선 시대는 예를 중시하는 유교를 국가의 통치기반이자 주도적 이데올로기로 삼았다. 종묘건축에

있어서도 이러한 성리학적 이념과 질서를 반영하고 있다.

종묘는 남북으로 긴 타원형의 지형에 지세에 따라 계곡부에 건물을 배치하였으며, 건물군의 주위는 야트막한 야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종묘내의 건물은 향대청, 정전, 영녕전을 중심으로 한 3개의 건물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문을 들어서면 지당이 있고 그 오른쪽에 향대청, 망묘루, 공민왕신당이 일곽을 이루고 있다. 북쪽으로 종묘의 주전인 정전이 방형의 일곽을 이루고 있으며, 방형의 담장내에는 정전, 칠사당, 공신당이 배치되어 있고, 정전일곽의 동남쪽에는 재실이, 수복방 외곽에는 전사청이 배치되어 있다. 종묘의 가장 안쪽에는 정전과 같이 영녕전이 방형담장내에 놓여 있으며, 정전과 영녕전 사이에는 악공청이 위치하고 있다. 종묘는 각각의 건물이 개별적으로 비대칭 구도를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대칭을 이룬다. 그뿐 아니라 의례 공간의 위계질서를 반영하여 정전과 영녕전의 신실과 좌우 협실, 동·서월랑의 지붕과 처마 그리고 기단 윗면의 높이는 신실, 협실, 월랑의 순으로 낮아지며, 기둥의 지름과 높이도 같은 순서로 작고 낮아지도록 되어 있다. 종묘는 조선시대의 전통건물로서 일반건축이 아닌 신전건축임에도 불구하고 건축의 보편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 많은 현대 건축가들의 연구대상이 되고 있으며 종묘의 뛰어난 건축적 가치는 동양의 파르테논이라 칭하여 지고 있을 만큼 건축사적 가치가 크다.

종묘 정전과 영녕전은 묘당건축의 특징에 따라



▲ 신실

전면에 퇴칸을 만들고, 나머지 삼면은 벽체로 감싸 내부공간을 어둡게 함으로써 신성함을 높였다. 퇴칸 앞쪽은 벽체 없이 기둥으로만 구성되어 묘정으로 트여 있고, 뒤쪽은 벽에 난 문을 통해 신위를 모신 건물 내부로 출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문은 각 칸마다 두 짝씩 달렸는데, 그 마춤이 정연하지 않고 약간 뒤틀리게 만들어 마치 혼이 드나드는 통로로 처리한 듯하다. 내부는 칸막이를 하지 않은 하나의 공간으로 되어 있으며, 신실은 건물 내부의 기둥과 기둥사이에 수렴(발)을 내려 각각의 방으로 구획한다. 신실의 뒷 벽면에는 감실을 꾸며 탁상을 놓아 높게 한 위에 신위(위패, 신주)를 봉안한다.

정전은 정면이 19칸, 측면이 3칸, 좌우의 익실 각 3칸으로 된 전장 101.4m, 건축면적 1,270㎡인 목조 건물이다. 또한 동서로 벽이 없는 월랑이 연결되어 전체적으로 “ㄷ”자형 평면을 이루고 있다. 정전은 처음에 태실 7칸, 좌우에 딸린 방이 2칸이었으나 선조 25년(1592) 임진왜란때 불타버려 광해군 즉위년(1608)에 다시 고쳐 짓고, 그후 영조와 현종때 증축하여 현재 태실 19칸으로 되어 있다. 정전에는 제1대 태조를 비롯하여 여러 왕 가운데 공적이 많은 왕과 왕후의 신위(49위)를 19개의 신실에 봉안하고 있다. 동서로 길게 지어진 정전은 상·하월대로 둘러싸여 멀고 깊은 감을 주며 천상과 지상의 오묘한 공간을 만들고 있다. 신문을 들어서면 넓은 월대가 펼쳐지는데 이곳에서 제관들이 제사를 올릴 때 의식을 행하며 대기하는 공간으로 여기서 제례악이 연주된다. 정전

정문인 남문은 신문이라고 하여 사람은 출입할 수 없고 혼백만이 출입할 수 있으며, 동문은 왕이, 서문은 악공 등이 출입하는 등 기능이 다르다. 세 문은 모두 익공식의 맞배지붕을 한 건물로 정문은 110㎡이며, 동문은 48.6㎡이고, 서문은 18.4㎡ 규모이며 각각의 기능에 따라서 규모에 차이를 두고 있다. 정전 담장은 지대석을 제외하고는 앞뒤 모두 네모 반듯한 사고석으로 쌓았다. 기와로 지붕을 덮었는데, 사람보다 훨씬 높아 밖에서는 지붕이 겨우 보일 정도이다. 이것이 정전 내부의 정숙함을 더한다. 정전의 뒷면에는 전벽돌을 질서정연하게 쌓아 올린 화방벽(火防壁)을 쌓았다.

영녕전은 세종 3년(1421)에 창건하여 처음에는 태실 4칸, 동서에 곁방 각 1칸씩으로 6칸의 규모였는데, 임진왜란때 불타버려 광해군 즉위년에 10칸의 규모로 지었으며 그후 계속 증축하여 현재 16칸으로 되어 있다. 궁덕이 높아 오랜 세대를 두고 제향을 지내는 제왕을 제외한 역대왕과 왕비의 신위는 일정한 시기가 경과하면 정전외의 다른 건물로 옮겨지는데, 정전 서북쪽에 위치한 영녕전은 이러한 목적으로 지어진 별묘이다. 영녕전의 주실은 정면 4칸, 측면 3칸이고, 서익실은 정면 5칸, 측면 3칸으로 전장 71.8m, 건축면적 1,262㎡인 건물이다. 각 칸마다 판문을 달고 문 외부에는 발을 쳤으며 모든 시설이 종묘 정전과 크게 다르지 않게 되어 있다. 현재 영녕전에는 정전에서 제외된 왕과 왕비 및 추존된 왕과 왕비 그리고 순조의 세자인 영왕 등 34위를 16개의 신실에 모시고 있다. 현재 정전에는 19실에 49위, 영녕전에는 16실에 34위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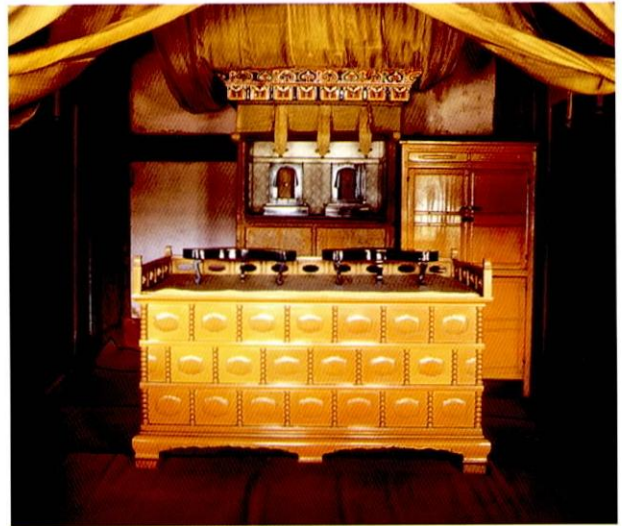


▲ 정전과 월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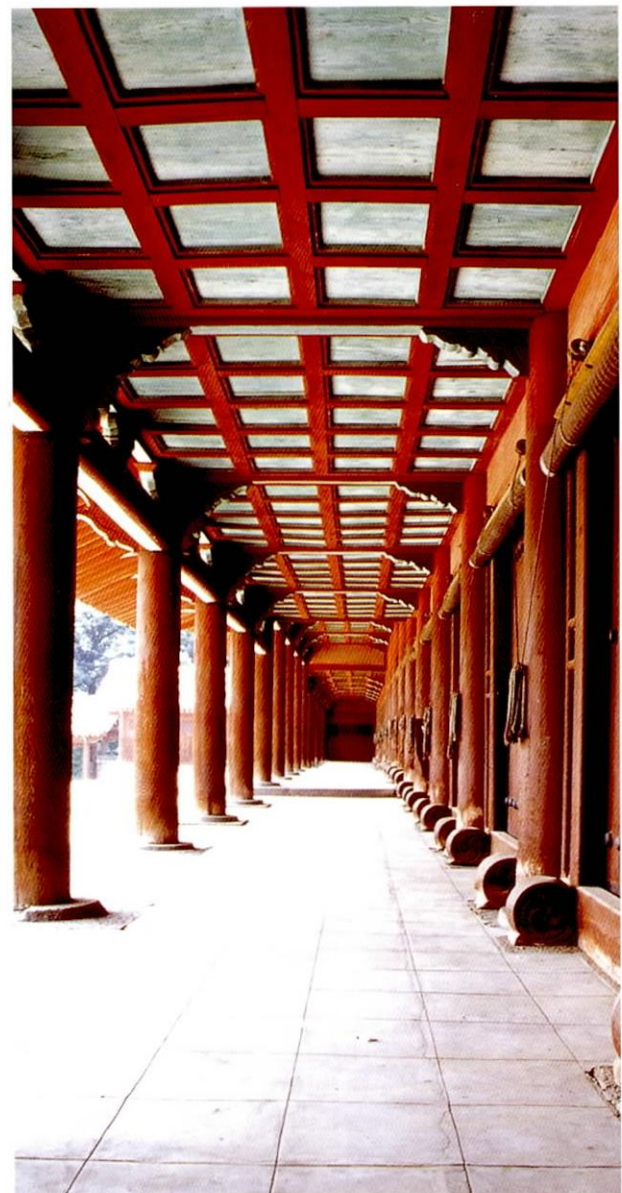
신위가 모셔져 있다. 월대 아래쪽 남문 동쪽에는 공신당이 있고, 서쪽에는 칠사당이 있다. 정전 뜰앞에 있는 공신당에는 조선시대 공신 83위가 모셔져 있다.

조선시대에는 정전에서 매년 춘하추동과 선달에 대향을 지냈고, 영녕전에서는 매년 춘추와 선달에 제향일을 따로 정하여 제례를 지냈으나 현재는 전주 이씨 대동종약원에서 매년 5월 첫째 일요일을 정하여 종묘제례를 거행하고 있으며 이 때 기악과 노래와 무용을 포함한 종묘제례악이 연주되고 있다.

종묘제례는 신을 영접하고 음식과 술로 즐겁게 해드린 후, 신을 보내드리는 순서로 진행된다. 제례를 올리는 사람이 종묘의 중심인 감실까지 접근하기 위해서는 정문-어로-어숙실-정전 동문-묘정-퇴칸-실내 어둠의 공간-감실 등 여러겹의 통로와 영역을 지나는 통과례를 거쳐야 한다. 이곳에 도달하기 위해서 제관은 켜 걸음으로 걸어도 안되고 돌아갈 수도 없다. 어로에 거친 박석을 깔아 느린 걸음을 유도했다. 제례는 목욕제례를 마친 320여명의 제관들이 동정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입정(入廷)하여 네 번 절을 올리는 참신(參神)으로 시작한다. 참신 후에는 향로에 향불을 세 번 지피고 술을 따라 땅에 세 번 붓고 제수를 올리는 영신(迎神)과 전폐(錢幣), 진찬(進饌)의 예를 진행한다. 이때 헌가(軒架)에서는 보태평지악(保太平之樂)을 편중, 편경, 박, 태평소 등 20여종의 악기로 연주하며, 헌가와 등가(登歌) 사이에 배열된 무원(舞員)들은 보태평지무(保太平之舞)를 춘다. 고려에서 전승된 향악에 새로운 음악 형식을 부여하여 창작한 보태평과 정대업은 세종말기부터 국악의 공사(公私) 연향(宴享)에 연주되다가, 세조 때 이르러 악곡 전체의 길이를 축소하고, 제례악에 걸맞는 악곡과 제반 요소를 첨가하는 편곡과정을 거친 뒤 종묘제례악으로 정식 채택되었다. 수많은 신라 향가가 곡조를 잃어버린 채 가사만 전하고 있고, 악보까지 남아 있는 「청산별곡(靑山別曲)」과 같은 고려가요 역시 기록으로서 존재할 뿐 음악으로서의 생명력을 잃은지 오래다. 이러한 점에서 500여년전의 역사를 실어 들려주고 있는 종묘제례악의 선율에서 세월의 깊이와 함께 종묘제례악이 소중한 무형의 유산임을 새삼 깨닫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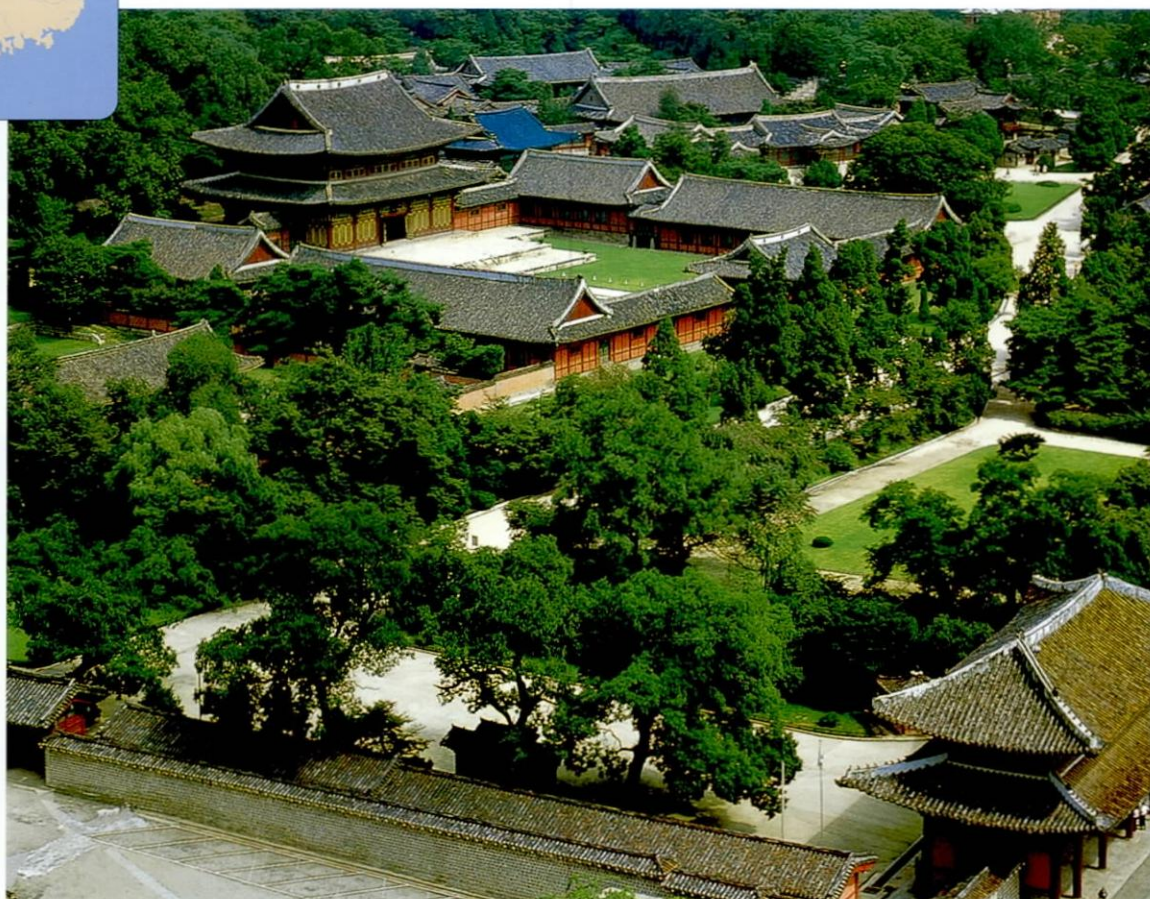


▲ 신주를 모신 신실



▲ 정전의 뒷간

# 창덕궁



▲ 창덕궁의 전경

창덕궁은 조선 태종 5년(1405)에 경복궁의 이궁(離宮)으로 지어진 궁궐이다. 창건 당시에 정전(正殿)인 인정전을 비롯하여 선정전, 회정당, 대조전 등 중요 전각이 완성되었고, 태종 12년(1412)에 돈화문이 건립되었다. 세조 9년(1463)에는 후원을 넓혀 15만 여평 규모로 궁의 경역을 크게 확장하였다. 임진왜란 때 소실된 것을 선조 40년(1607)부터 광해군 5년(1613)에 걸쳐 중건하였으나, 다시 1623년 인조반정 때 인정전을 제외한 대부분의 전각이 소실되어 인조 25년(1647)에 복구하였다. 그 후에도 여러번 화재가 있었

으며, 1917년에 대조전과 회정당 일곽이 소실되어 1920년에 경복궁의 교태전·강녕전 등의 건물을 철거하여 창덕궁으로 이관하였다. 창덕궁은 1610년 광해군 때부터 정궁으로 쓰여 1868년 고종이 경복궁을 중건할 때까지 258년 동안 역대 제왕이 정사를 보았던 곳이다. 창덕궁의 역사에 대한 기록은 『조선왕조실록』, 『궁궐지』, 『창덕궁 조영의궤』, 『동궐도』 등에 의해 건물배치와 건물형태를 알 수 있고, 궁궐사와 궁궐건축을 연구 고증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창덕궁은 사적 제122호로 지정 관리되고 있으며, 1997년 12월



▲ 인정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

창덕궁은 자연스런 산세에 따라 자연지형을 크게 변형시키지 않고 산세에 의지하여 인위적인 건물이 자연의 수림속에 포근히 자리를 잡도록 배치하여 자연과 인간이 만들어낸 완전한 건축의 표상이다. 또한 왕들의 휴식처로 사용되던 후원은 300년이 넘는 거목과 연못, 정자 등 조원(造園)시설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도록 함으로써 건축사적으로나 조경사적 측면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

창덕궁은 창건 이후 여러차례 중건되었지만 전각을 중심으로 한 건물의 기본배치는 크게 달라지지 않고 창건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오늘날 창덕궁에는 돈화문, 인정전, 인정문, 선정전, 대조전, 희정당, 낙선재, 영화당, 부용정, 주합루, 연경당 등 주요 건물이 남아있다. 창건 당시 창덕궁이 경복궁의 동쪽인 향교동에 자리했다고 하여 동궐이라는 별칭이 붙었으며, 1830년 경에 그린 『동궐도』에는 창덕궁 건물의 배치형태, 수목분포, 연지, 해시계, 우물 등을 그림으로 세밀하게 도시되어 있어 궁궐건축과 궁궐사에 중요 고증자료가 되고 있다.

창덕궁의 정문인 돈화문(敦化門, 보물 제383호)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궁궐 정문으로 정면 5칸, 측면 2칸에 우진각지붕의 다포식 건물로서 태종 12년



▲ 희정당

(1412)에 조영(造營)되었다. 돈화문은 홍예문이 열린 높은 댓돌 위에 2층의 문루(門樓)를 세운 광화문과는 달리 2층의 중문(重門)으로 조성되었다. 돈화문은 임금이나 외국 사신이 출입할 때 주로 이용했으며 돈화문의 2층은 임금이 잔치를 베풀만큼 넓은 공간으로 되어 있다. 『태종실록』에는 돈화문의 2층 문루에 1만 5천근의 대종을 걸었다는 기록이 있으며, 현재 재건된 것으로 추정된다.

창덕궁의 정전인 인정전(仁政殿, 국보 제225호)은 이중의 월대 위에 중층으로 세워진 정면 5칸, 측면 4칸의 다포식 건물이다. 안에 들어가 보면 아래 위층이

트여있는데, 임금이 권좌를 중심으로 높이 앉아 내려다 보며 만조백관과 조회할 수 있도록 장엄하고 권위있게 지었다. 『궁궐지』에 의하면 역대 왕들이 이곳에서 백관하례를 받았다고 전하고 있다. 건물 앞에는 월대가 있고 월대 밑의 넓은 마당에는 돈화문에서부터 진선문과 인정문으로 연결되는 어도가 있다. 어도의 양쪽에는 정1품에서 종9품까지의 품계석이 세워져 있는데 동쪽에는 문관, 서쪽에는 무관이 서는 정위치를 표시한 것이다. 월대로 오르는 층계에는 해태, 봉황, 당초 등의 문양이 새겨져 있는데 해태와 봉황은 왕을 상징하고 당초는 번창하는 백성을 뜻한다. 인정전 안에는 건물의 중앙 후측에 어좌가 장엄하게 꾸며져 있다. 어좌는 높은 단 위에 용상이 설치되고 뒤에는 일월오악병풍이 세워져 있다. 일월은 해와 달로 왕을 상징하며 오악은 다섯 개의 봉우리로 된 산으로 국토를 뜻하는 것이다. 이런 그림의 장식은 같은 동양건축이면서도 중국이나

일본에는 없는 특이한 것이다. 경복궁이나 다른 건물에서는 창에 녹색칠을 했는데 인정전에는 황금색을 칠했다. 이는 구한말 왕의 칭호를 받던 고종이 황제로 즉위하게 된 때문이었다.

선정전(宣政殿, 보물 814호)은 평상시 임금이 신하들과 국정을 의논하던 편전으로 인정전 동쪽에 뒤로 물러나 앉아 있다. 선정전은 아홉간 밖에 안되는 낮고 아담한 건물로서, 외벌의 댓돌을 넓게 설치하고, 창기와를 입힌 것과 가운데 간으로 통하는 천랑이 있는 점이 특색이다. 『궁궐지』에서는 '선정전이 옛날의 편전이며 회정당이 편전으로 왕이 정사를 보는 곳이다'고 기록되어 있어 『궁궐지』가 편찬된 순조 연간 이후에는 회정당을 편전으로 이용했음을 알 수 있다. 선정전은 임진왜란 때 소실되어 광해군 때 재건했다가 인조 반정시 또다시 화재를 당해 인조 25년(1645)에 중건하였다.

회정당(熙政堂, 보물 제815호)은 침전이 딸린 편전으로 임금이 정사를 보던 곳이다. 건축양식은 정전과 같이 복잡화려한 다포양식이 아니고 익공 양식이며 왕의 침실에 시중을 드는 상궁, 환관들의 방이 많이 부설되어 있다. 창건 당시의 건물은 불에 타고 1920년에 경복궁의 침전인 강녕전을 옮겨다가 회정당을 지었다. 고종은 경복궁이 완성될 때까지 이곳에 머물렀고 순종은 끝까지 이곳에서 살다가 승하하였다. 19세기 서양문물이 들어오면서 서양식의 응접실과 회의실이 구비되어 있다. 응접실에는 조선말기의 대화가인



▲ 주합루



▲ 회랑에서 본 인정전

김규진이 그린 「충석정절경도」와 「금강산만물초승경도」가 벽면을 장식하고 있다.

낙선재(樂善齋)는 현종 12년(1846)에 건립되어 고종과 순종의 편전으로 사용된 곳이다. 남쪽 행각 12칸에 설치된 정문인 장락문(長樂門)을 들어서면 넓은 마당 뒤로 낙선재가 있다. 본 건물에 접속된 석복헌과 수강재까지 3개의 건물을 모두 낙선재라고 부른다. 수강재는 정조 9년(1785)에 세자의 거처로 건립되었으며, 석복헌은 현종 14년(1848)에 낙선재의 안사랑채로 건립되었다. 1945년 이후에는 영왕과 왕비 및 용주 등이 거처하였다. 정면 6칸 중 우측 1칸이 앞으로 돌출하여 누마루가 되고, 몸체는 장대석 기단 위에 방형 초석과 기둥을 얹은 일반적인 주택풍으로 세웠다.

대조전(大造殿, 보물 제816호)은 왕비의 침전으로서 왕의 정침 바로 뒤에 위치하고 있으며, 태종 연간에 창건되었으나 1917년의 화재 이후 1920년 경복궁의 강녕전을 헐어 회정당을 지을 때, 교태전도 함께 옮겨와 대조전을 지었는데 창덕궁에 적합하도록 하였다. 대조전은 왕비의 침전이므로 다른 전각과 달리 용마루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대조전 앞쪽 월대에서는 경사스런 날에 무희가 가무를 하게 하고 왕과 왕비가 이를 관람하였다. 중앙에는 6칸의 큰 대청이 있고 그 좌우에 침실이 있으며 침실 전후의 작은 방에서 상궁들이 대기하면서 시중을 들었다. 뒤뜰에는 화계(花階)를 꾸몄고 앞마당에는 양부일구(해시계)를 놓았으며

굴뚝은 학, 용 등의 무늬벽돌로 장식하였다.

창덕궁 후원은 인조 때 수많은 정자를 새로 건립하고 물을 끌어들이 조경을 하면서 지금같은 큰 규모의 후원으로 변모했는데 후원 가장 북쪽에 옥류천을 파고, 그 주변에 소요정과 태극정 등을 세우고 앞에 폭포를 만들었다. 정조 원년(1776)에는 규장각을 건립하고, 왕실의 도서를 모아 두었으며, 그 상층의 누각을 꾸며 주합루라고 이름했다. 주합루의 전방에는 정방형의 연못인 부용지를 조성하고, 반대쪽 연못가에 부용정(芙蓉亭)을 건립했다. 순조 28년(1828)에는 왕이 백성들의 실생활을 느껴보기 위하여 연경당(演慶堂)이라는 민가를 지었다. 영화당 동쪽 마당에는 과거장을 마련하고, 임금이 친히 참석하여 인재를 뽑는 장소로 사용하였다. 창덕궁 후원의 모습은 자연을 그대로 살리면서 인공적 조원시설 또한 자연속에 조화되도록 꾸몄다.



▲ 후원의 전경



▲ 애련정



# 수원 화성



▲ 장안문(북문)

**수**원은 18세기 조선 22대 왕인 정조(1776~1800)의 큰 꿈이 서려있는 역사도시이다. 화성(華城)은 이 신도시를 건설할 무렵 붙인 이름이다. 경제적·군사적 요충지로서의 신도시를 조성하고자 했던 정조의 계획은 유능한 실학자들에 의해 화성으로 구체화되었다. 200년 전 축조된 이 성은 가장 근대적인 규모와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전란 경험과 대포 등의 발달로 기존 성의 미비점을 보완해서 실전에 있어서 성에 근접하는 적을 가장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토성과

석성의 취약점을 보완하여 견고성과 디자인의 용이성을 최대한 살림으로써 성곽 축성사의 걸작이라 할 수 있다. 화성은 18세기가 요구하는 진보된 도시의 모습을 보여주는 한편 성곽으로서도 이제까지 없던 새로운 개념을 창조해 냈다. 상업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도시를 계획하고, 이러한 도시기능에 합당하면서도 방어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성곽을 만든 것이다. 화성의 성곽 건축은 독특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으며, 조선시대 건축이 오랜시간 다듬어 온 미적 전통을 계승하고, 여기에 새로운 건축의 가능성을

보여줌으로써 미래를 향한 실험적 건축정신을 표현하고 있다.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능을 양주 배봉산에서 수원 화산으로 옮기고 화산부근에 있던 읍치(邑治)를 수원의 팔달산 아래 지금의 위치에 화성을 축성하였다. 화성은 정조의 효심이 축성의 근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쟁에 의한 당파정치 근절과 강력한 왕도 정치의 실현을 위한 원대한 정치적 포부가 담긴 정치 구상의 중심지로 지어진 것이며 수도 남쪽의 국방 요새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화성은 다산 정약용이 동서양의 기술서를 참고하여 만든 『성화주략』(1793년)을 지침서로 하여, 영중추부사 채제공의 총괄아래 조심태의 지휘로 1794년 1월 착공하여 1796년 9월에 완공되었다. 축성시 거중기, 녹로 등 새로운 기계를 만들어 큰 돌들을 옮겨 쌓는데 이용하였다. 화성은 축성과 함께 부속시설물로 화성행궁, 중포사, 내포사, 사직단 등 많은 건물들을 건립하였으나 전란으로 소멸되고 현재 화성행궁의 일부인 낙담헌만 남아있다. 화성 성곽은 축조 이후 몇 차례의 전란으로 일부가 파손·손실되었으나 1975~1979년까지 『화성성역의궤』에 의거하여 대부분 축성당시 모습대로 보수·복원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성의 둘레는 5,744m, 면적은 130ha로 동쪽지형은 평지를 이루고 서쪽은 팔달산에 걸쳐있는 평산성의 형태로 성의 시설물은 문루 4, 수문 2, 공심돈 3, 장대 2,

노대 2, 포(鋪)루 5, 포(咆)루 5, 각루 4, 암문 5, 봉돈 1, 적대 4, 치성 9, 은구 2 등 총 48개의 시설물로 일괄을 이루고 있으나 이 중 수해와 전란으로 7개 시설물(수문 1, 공심돈 1, 암문 1, 적대 2, 은구 2)이 소멸되고 41개 시설물이 현존하고 있다. 화성은 축성 시의 성곽이 거의 원형대로 보존되어 있을 뿐 아니라, 복수문(화홍문)을 통해 흐르던 수원천이 현재에도 그대로 흐르고 있고, 팔달문과 장안문, 화성행궁과 창룡문을 잇는 가로망이 현재에도 도시 내부 가로망 구성의 주요 골격을 유지하고 있는 등 200년전 성의 골격이 그대로 현존하고 있다.

화성은 중국, 일본 등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평산성의 형태로 군사적 방어기능과 상업적 기능을 함께 보유하고 있으며 시설의 기능이 가장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실용적인 구조로 되어 있는 동양 성곽의 백미라 할 수 있다. 성벽은 외측만 쌓아올리고 내측은 자연지세를 이용해 흙을 돋우어 메우는 외측내탁의 축성술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성곽을 만들었으며, 또한 화성은 철학적 논쟁 대신에 백성의 현실생활 속에서 학문의 실천과제를 찾으려고 노력한 실학사상의 영향으로 벽돌과 돌의 교축, 현안·누조의 고안, 거중기의 발명, 목재와 벽돌의 조화를 이룬 축성방법 등은 동양성곽 축성술의 결정체로서 희대의 수작이라 할 수 있다. 축성 후 1801년에 발간된 『화성성역의궤』에는 축성계획, 제도, 법식 뿐 아니라 동원된 인력의 인적

▼ 동암문



▼ 창룡문(동문)



사항, 재료의 출처 및 용도, 예산 및 임금 계산, 시공 기계, 재료가공법, 공사일지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 성곽축성 등 건축사에 큰 발자취를 남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기록으로서의 역사적 가치가 큰 것으로 평가 되고 있다.

화성 성벽은 서쪽의 팔달산 정상에서 길게 이어져 내려와 산세를 살려가며 축조하였으며 크게 타원을 그리면서 도시 중심부를 감싸는 형태를 띠고 있다. 화성은 사적 제3호로 지정 관리되고 있으며 소장 문화재로 팔달문(보물 제402호), 화서문(보물 제403호), 장안문, 공심돈 등이 있다. 화성은 1997년 12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

공심돈은 망루와 같은 것으로 벽체 내부 주위로는 사다리와 통행로를 두고 중앙부는 빈 공간으로 둔 것을 말한다. 화성에는 서북공심돈과 동북공심돈이 남아 있는데 서북공심돈은 화서문 옆에 돌출한 성벽 위로 높은 망루를 세운 형상을 하고 있다. 높이는 5.58m로 위로 올라갈수록 좁아지며 성벽 상부는 3층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성벽 각 면에는 총 구멍을 뚫어 성에 접근하는 적을 방어하도록 하였고 윗부분에는 불랑기나 백자총통을 설치하였다. 동북공심돈은 동장대의 동쪽에 있으며 높이 6.8m의 타원형으로 되어있는 것이 특징이며 원통형에 가까운 벽면 전체가 벽돌로만 축조되어 있다. 봉돈(烽墩)은 행궁을 지키고 성을 파수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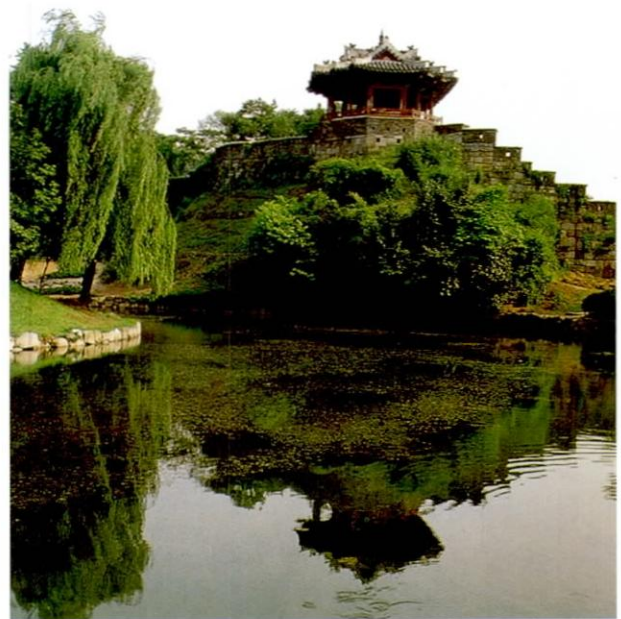
주변을 정찰하여 인근에 사태를 알리는 역할을 하던 시설이다. 다섯 개의 커다란 연기 구멍을 뚫어 신호를 보낼 수 있도록 했다.

화성의 성벽은 기본적으로 밖에는 높은 성벽을 쌓고 안에는 흙으로 여장(女牆) 높이의 버팀벽을 쌓았는데, 이것은 성벽 안팎을 모두 돌로 쌓는 수고를 덜고 성벽을 견고히 하는 동시에 내부에서 밖을 살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성벽의 꼭대기에는 여장(女牆)이라고 하여 몸을 숨기고 적을 감시 혹은 공격할 수 있는 틈새가 있는 낮은 담을 설치했다. 성벽에는 네 개의 성문이 나 있는데, 북쪽의 장안문(長安門)과 남쪽의 팔달문(八達門)이 간선대로를 연결하는 큰 문이고, 동쪽의 창룡문(蒼龍門)과 서쪽의 화서문(華西門)은 각각 또 다른 도로로 통한다. 각 성문에는 웅성(甕城)이라는 이중문이 설치돼 있다.

화성에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개천이 성내를 관통하고 있어 북수문과 남수문을 설치했다. 용연(龍淵)이 있는 비교적 경관이 아름다운 곳에 세운 북수문은 일곱 개의 아치형 수문 위에 화홍문이라는 누각을 세웠다. 아치문 위로는 사람이 다닐 수 있는 통로를 마련했으며, 북쪽이 바로 성밖이기 때문에 벽돌로 여장을 높이 쌓고 여러개의 총구멍을 냈다. 북에서 남으로 성내를 관통하는 개천의 북쪽 수문인 화홍문은 수문의 기능과 문루가 하나의 예술품으로 조화를



▲ 봉돈



▲ 방화수류정

이루어 동북각루(방화수류정)와 함께 한쪽의 그림을 연상케하는 18세기 건축미의 원숙함을 보여주고 있다.

성벽에는 거의 100m 간격으로 돌출부가 있어서 성벽에 접근하는 적을 공격할 수 있게 했는데, 이것을 치성(雉城)이라 한다. 성벽의 일부를 돌출시켜 만든 치성 가운데 대포를 설치한 것을 포루(砲樓)라고 하고 치성 위에 있는 누각으로 적을 관찰하며 아군의 동향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을 포루(鋪樓)라고 하는데, 특별히 성벽 네 모서리 비교적 높은 곳에 세운 것은 각루(角樓)라고 한다. 또 정8각형의 정면에 전돌로 쌓은 노대(弩臺)에는 여러개의 화살을 한꺼번에 쏘는 쇠뇌를 설치했다.

서울을 향해 북향하고 있는 장안문(북문)은 돌로 높이 쌓은 사다리꼴의 육축 가운데 홍예문을 내고 육축 위에는 이층으로 된 장중한 누각을 세웠다. 앞쪽의 웅성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서울의 남대문과 흡사한 모습이다. 한가운데 아치형 문이 나 있는 웅성에는 오성지(五星池)라는 구멍이 다섯 개 뚫린 일종의 물탱크를 설치하여 적이 성문에 불을 놓을 때를 대비

했다. 화성 성곽이 북쪽에 있는 장안문은 반대 방향에서 있는 팔달문(남문)과 규모나 형태가 동일하다.

역시 반원형 이중문인 웅성이 있고, 문 좌우에는 높은 위치에서 성문에 접근하는 적을

살피고 공격할 수 있는 적대(敵臺)를 설치했다.

화홍문 동쪽의 높은 언덕 위에는 또 한 채의 누각이 높이 솟아 있는데 이것이 방화수류정이다. 이 누각에 올라서면 멀리 팔달산이 한눈에 들어오고, 용연(龍淵)이라는 아름다운 연못이 내려다 보인다. 건축구조에 있어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벽돌로 쌓은 벽과 목조 기둥이 결합된 벽면이다. 붉은색을 칠한 목조기둥을 좌우에 세우고 그 사이에 벽돌을 채워 넣었는데, 이것은 건축구조의 새 장을 여는 실험적 방식을 구사한 것이었다. 특히 화홍문에서 올려다 보이는 한쪽 벽면은 벽돌을 모자이크 형식으로 꾸며 재료에 알맞은 색다른 장식의 한 것이 특이하게 보인다.

화성의 남문인 팔달문은 반듯하게 다듬은 커다란 돌을 가지런히 쌓아올린 웅장한 축대 위에 날아갈 듯한 이층 지붕의 누각을 올려서 만든 건물이다. 나지막한 단층 지붕들이 잇닿은 곳 높은 석축 위에 세운 이층의 누각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훨씬 장대한 모습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팔달문의 기타 부분에는 조선시대 목조건축의 화려하고 세련된 기법이 망라돼 있다. 정교하게 다듬은 둥근 주춧돌로부터 지나칠 정도로 굽어 보이게 함으로써 안정감을 준 둥근 기둥, 정교하게 가공된 기둥 위 나무조각들의 짜임새, 압도적인 힘을 느끼게 하는 대들보, 가지런히 늘어선 서까래 등 각각의 작은 부분들이 당당하고 화려한 전체 외관과 조화를 이룬다.



# 경주 역사유적지구



▲ 남산 전경

경주는 신라 천년(B.C. 57~A.D. 935)의 역사를 간직한 수도로서 세계역사상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오랜동안 한 나라의 중심지 역할을 한 곳이다. 따라서 정치, 경제, 문화, 산업의 자취를 곳곳에서 찾을 수 있다.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해도 월성을 비롯한 궁궐터, 신라 최대의 가람이었던 황룡사터, 천마총·황남대총 등 왕릉과 고분군, 건국 시조의 전설이 깃든 우물과 숲, 당대의 토목 기술을 알려 주는 옛 다리, 천체를 관측하던 시설 등 고대국가의 역사를 증거하는 유적과 유물들이 많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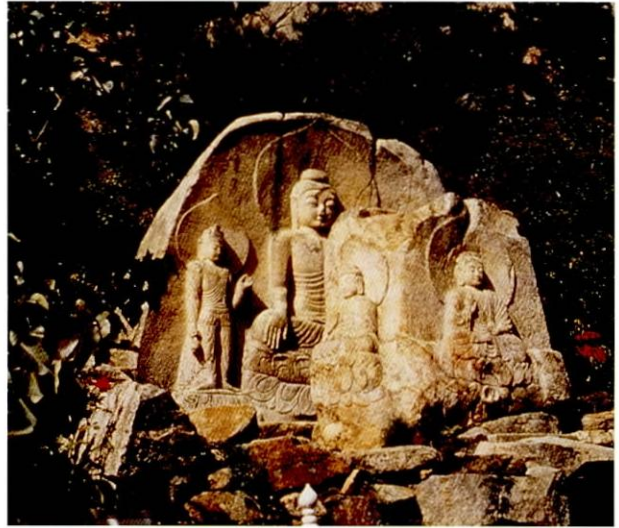
경주가 한 나라의 서울로 천년을 지탱해 온 이유는 경주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 배경을 살펴보면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경주는 사방이 산으로 겹겹이 둘러싸여 있는 형세이다. 동쪽으로 명활산과 남산, 남쪽으로 남산과 망성산, 서쪽으로는 선도산과 송화산이 자리 잡고 있으며, 북쪽으로 금강산이 있다. 이들 산 사이에는 서천과 북천 그리고 반월성을 돌아 남천이 흐르고 이 강들은 형산강 본류를 이루어 동해로 빠져 나간다. 이처럼 경주 주변의 산세는 마치 경주 분지를 둘러싼 이중의 성벽과 같다. 신라는 강 줄기를 교통로로 이용

했고, 산에는 견고한 성벽을 쌓아 도시 방어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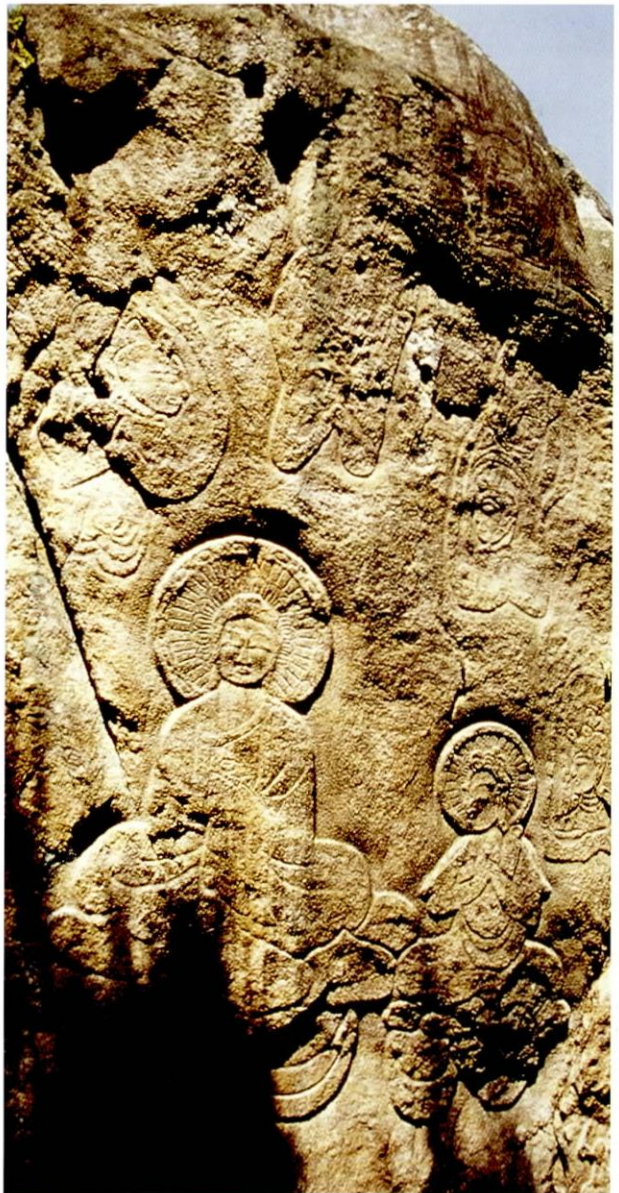
전성기의 경주에는 17만여 호의 가옥이 있었다. 현강왕 때에는 초가는 한채도 볼 수 없고 금입택(金入宅)이 35채나 될 정도로 대단히 화려했다고 한다. 경주는 또한 방리제(坊里制)에 따라 정연하게 구획을 나누고 도로와 배수시설까지 갖춘 계획도시였다. 최근에는 도로와 마차가 다녔던 흔적, 집터와 담장, 집집마다 우물을 갖추고 있던 흔적들도 발굴되고 있다. 경주는 신라 말기에 후백제왕 견훤의 침입으로 크게 파괴된 적이 있고, 고려시대에는 몽고군의 침입으로 황룡사가 불에 타는 등 재난을 당하였다. 또 고려 말에는 왜구의 침략을 받았고 조선시대에는 임진왜란으로 큰 피해를 입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수많은 유산들이 사라지고 파괴되었으나 아직도 1400여 곳의 유적과 수많은 유물들을 간직하고 있어 도시 전체가 박물관이라고 할 만큼 역사의 현장이 많이 남아 있다.

신라 도읍지로서의 경주의 면적은 현재 경주 시가지와 거의 비슷한 규모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당시 경주에는 월성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통하는 큰 도로가 있었고, 바둑판처럼 반듯하게 구획을 나눈 지역이 있었으며 그 사이 사이로 작은 길을 냈던 것으로 보인다. 동쪽과 서쪽에는 큰 시장이 있었고, 강을 건너기 위한 다리도 여러 개 놓여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는 일정교(日精橋)와 월정교(月精橋) 터만 확인될 뿐이다. 석굴암·불국사는 1995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고, 2000년에 경주의 대표적인 유산을 묶어 경주역사유적지구를 다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였다. 경주 역사유적지구는 유산의 성격에 따라 남산지구, 월성지구, 대릉원지구, 황룡사지구, 산성지구 등 5개 지구가 있다.

남산은 경주의 남쪽에 있으며 금오산과 고위산 두 봉우리를 잇는 산들과 그 산 사이의 계곡들로 이루어져 있다. 남북 길이 8km, 동서 너비 약 4km로 남북으로 길게 자리잡은 타원형 모양의 산 가장 높은 봉우리의 높이는 해발 495m이다. 남산은 지세에 따라 동남산과 서남산으로 나눌 수 있다. 동쪽은 경사가 급하고 정상까지의 거리가 짧은 반면 서쪽은 경사가 완만하여 정상까지의 거리가 2.5km나 된다. 남산에는 수십여 골짜기가



▲ 칠불암



▲ 탐골계곡의 마애불



▲ 대릉원

있는데 골짜기마다 절터, 불상, 불탑 등 불적(佛蹟)들이 많이 남아있다. 이러한 불적들은 서남산 쪽에 더 많다. 남산은 신라 초기 산천 숭배신앙의 대상이었던 오악(五嶽)의 하나인 남악(南嶽)으로서 성스러운 산 중의 하나였고 신라에 불교가 전해진 이후 신라 사람들에게 불교의 성지인 수미산(須眉山)으로 여겨진 탓에 수많은 불교 유적이 남아 있다. 남산은 고대 불교 미술 연구의 보고이며, 고대 사상 연구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곳이다.

월성지구에는 신라가 고대 국가로 발돋움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신라 초기의 유적들과 통일기에 들어선 신라문화의 발전상을 보여주는 기념물들이 많이 남아 있다. 궁궐이 자리하고 있던 월성(月城), 신라 김씨 왕조의 시조인 김알지가 태어난 계림, 신라 통일기에 조영한 임해전(臨海殿)이 있던 터, 그리고 천문 관측 시설인 첨성대(瞻星臺) 등이 있다. 월성은 신라시대 궁궐이 있던 곳으로 지형이 초승달처럼 생겼다 하여 그와 같은 이름이 붙여졌다. 남천이 흘러 자연적인 방어막이 형성된 남쪽을 제외한 동·서·북쪽에는 넓은 도랑(核字)을 만들어 방어시설을 갖추었다. 임해전은 신라 통일기 궁궐의 일부로서 문무왕 14년(674) 궁 안에 못을 파고 산을 만들어 귀한 새와 기이한 짐승을 길렀다는 곳이다. 임해전이라는 이름은 연못을 바다로

생각하고, 바다 옆에 세운 건물이라는 뜻이다. 임해전은 나라에 경사가 있거나 귀한 손님이 왔을 때 연회를 베풀던 곳으로 연못 이름은 원래 월지(月池)였으나 조선시대에 이곳에 기러기와 오리가 날아들어 놀았기 때문에 안압지(雁鴨池)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경주 평야에는 신라 왕과 왕비를 비롯한 귀족들의 무덤이 많이 남아있다. 이를 현 행정구역에 따라 몇 개로 구분하여 부르는데 규모가 큰 고분군으로는 황남리·황오리 고분군, 노동리·노서리 고분군, 금척리 고분군, 인왕동 고분군, 서악동 고분군 등이 있다. 대릉원지구에는 황남리·노동리·노서리 고분군과 신라오름이 있다. 황남리 고분군에는 크고 작은 무덤들이 무리를 이루고 있다. 대릉원이라고도 부르며 봉분이 있는 것과 봉분이 남아있지 않은 것을 모두 합하면 250여 기나 된다. 그 가운데 제98호 고분인 황남대총과 제155호 고분인 천마총에서는 금관, 치레걸이(裝身具), 유리잔 등 여러 종류의 껌문거리가 출토되었다. 천마총에서 발굴된 자작나무 껍질에 말 그림이 그려져 있는 말다래(簾泥)는 신라 미술 연구에 귀중한 사료가 되고 있다. 이처럼 무덤 안에는 당대의 생활모습을 가늠할 수 있는 갖가지 물건들이 있었다. 이것들은 신라 문화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으며 서역(西域)을 비롯한 외국 물건들도

적지 않아 비단길을 통해 대외 무역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게 한다.

황룡사(黃龍寺)는 신라 칠처가람(七處伽藍)의 하나로서 규모면에서 신라 제일임은 말할 것도 없고, 신라 불교사에서도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곳이었다. 분황사(芬皇寺)는 고승 원효와 자장이 살았던 곳으로 기억할 만한 곳이며, 구리 36만 6700근을 녹여 만들었다는 약사여래불과 솔거의 관세음보살 벽화가 있던 곳으로도 유명하다. 황룡사는 월성 동쪽, 용궁의 남쪽에 있던 절이다. 진흥왕 14년(553) 궁궐을 새로 짓다가 황룡이 나타나자 왕명에 따라 불사(佛舍)로 고치고 17년 만에 완성하여 황룡사라 하였다고 한다. 진흥왕 35년(574)에는 장육존상(丈六尊像)을 모시고, 선덕여왕 14년(645)에는 백제의 아버지에게 청하여 한 번의 길이가 22.2m, 바닥 면적 150평, 높이 75여 m에 이르는 거대한 규모의 9층 목탑을 세우고 호국사찰로서 위용을 갖추었다. 그러나 이 탑은 1238년 몽고 침입으로 불타 없어지고 현재는 그 터만 남아있다.

황룡사터를 발굴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시의 규모와 가람 배치를 알 수 있게 되었는데 절의 규모는 동서 288m, 남북 281m로 2만 5000여 평에 달했고, 가람 배치는 1탑 3금당의 정방형에 가까운 구조였다. 이와 같은 가람배치는 삼국 시대 일탑식 가람의 전형으로 알려지고 있다. 터 발굴 당시 4만여 점의 유물도 출토되었다.

분황사터에는 모전석탑(模塹石塔)이 남아있다. 이는 선덕여왕 3년(634) 바윗돌을 벽돌처럼 다듬어 쌓은 것으로 원래는 7층이나 9층이었을 것으로 짐작되나

지금은 3층만이 남아있다. 1층 몸체에는 사방에 쌓여 단이문으로 된 굴방이 있고, 굴방 입구 양쪽에는 인왕상(仁王像)이 돌을 새김 되어 있으며, 자연석 기단 위에는 화강암으로 조각한 돌사자가 4마리 있다. 탑에서 나온 사리함에는 구슬, 가위, 금바늘, 은바늘, 은합 등이 들어 있었다.

신라는 주로 왜(倭)를 방어하기 위해 동해 연안과 동해에서 들어오는 길목에 산성을 축조했다. 경주를 지키는 방어시설로는 궁궐을 지키던 성인 월성이 있고, 외곽을 지키는 성곽으로는 동쪽의 명활산성과 서쪽의 서형산성, 남쪽의 남산성, 북쪽의 북형산성, 북서쪽의 부산성 등이 있다. 이들 산성은 대체로 산꼭대기를 테로 두른 듯 쌓은 테뫼식 성들이다. 그러나 서남쪽에 있는 관문성은 동대산에서 천마산을 지나 치슬령에 이르는 30리 길을 산과 산을 이어 쌓았다.

명활산성은 월성의 동쪽에 있는 석축산성으로 경주의 외곽을 방어하기 위해 축조한 것이다. 해발 295m 높이의 산마루를 따라 4.5m에 걸쳐 쌓았으며 높이가 10m에 이르고, 내벽석성에 높이 5m의 외벽을 갖춘 이중구조의 성곽이다. 성을 쌓은 시기는 확실히 알 수 없으나 실성왕 4년(405)에 명활산성을 공격해 온 왜병을 물리쳤다는 기록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400년 이전에 쌓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자비왕은 한때 월성에서 이곳으로 옮겨와 살기도 하였다. 지금은 성의 대부분이 무너져 옛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지만 몇 군데에서 자연석을 가공하지 않고 쌓은 과거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진평왕 때 개축한 것으로 보인다.



▲ 동부유적지



▲ 임해전



# 고창·화순·강화 고인돌 유적



▲ 고창읍 도산리 고인돌

고인돌은 선사시대 사람들의 무덤으로 큰 돌을 다듬어 뚜껑으로 덮고 고임돌로 뚜껑의 네 모퉁이를 받치고 있는 구조의 거석 기념물이다. 큰 돌을 이용하여 만든 거석 기념물은 권력의 상징이자 신앙의 대상으로 이집트의 피라미드, 영국의 스톤헨지부터 라파누이(이스터) 섬의 모아이에 이르기까지 세계 여러 지역에서 볼 수 있다.

고인돌은 한국·만주·일본 등 동아시아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한국이 그 수에 있어서 단연 으뜸이다. 한국의 고인돌은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도 3만여 기에 이르며 생김새와 크기가 다양하고 뚜껑돌(덮개돌)의 무게도 수십 톤에서 수백 톤에 이른다. 한국 고인돌은 형식이 다양하고 세계 어느 곳보다도 그 수가 월등히 많아 고인돌의 기원 및 발전 과정을 연구하는 데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인류가 보존해야 할 귀중한 문화유산으로 평가되고 있다.

고인돌은 고인돌의 생김새와 받치고 있는 모습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고임돌을 상자처럼 짜고 그 위에 뚜껑돌을 올려 놓은 탁자식과 납작한 돌을 괴고 뚜껑돌을 올려 놓은 바둑판식이 그것이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서 고임돌 없이 뚜껑돌만 보이는 개석식도 있고, 유럽에서는 터널식 구조를 보이는 것도 있지만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탁자식과 바둑판식이 기본을 이룬다. 탁자식은 돌방을 땅 위에 놓고 바둑판식은 땅 속에 돌방을 만들어 주검과 껌겨(副葬品)를 묻었다.

거석 기념물을 만들려면 많은 사람이 동원되어야 한다. 고인돌을 세우려면 쓸 만한 돌을 찾아 적당한 크기로 자르고 무덤 자리까지 운반한 다음 고임돌을 세우고 그 위에 큰 뚜껑돌을 올려 놓아야 한다. 이런 작업을 하려면 적어도 수십 명에서 많게는 수백명의 사람이 필요했다. 따라서 사회 생산력과 규모가 일정한 크기에 도달해야 하고 사회 구성원들을 조직화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 이런 이유로 고인돌은 농업 생산력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해 있고 적어도 족장(族長)급 지도자가 다스리는 사회에서나 만들 수 있었다.

한국에서는 선사 문화 발전단계상 청동기 시대에 이르러 고인돌이 나타나며, 그 시기는 기원전 1000년에서 2000년 사이에 시작되어 기원 전후 시기까지 1000여 년 동안 계속된 것으로 여겨진다. 고인돌을 발굴해 보면 청동검, 청동 활촉 등이 나오고 청동기 시대에 주로 만들어 썼던 민무늬 토기와 반달돌 칼(半月形石刀), 간돌검(磨製石器) 등도 많이 볼 수 있다.

한국 고인돌 가운데 2000년에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것은 고창·화순·강화 고인돌 유적이다. 고창·화순 고인돌 유적은 보존상태가 좋고 분포밀집도가 높으며, 강화 고인돌 유적은 역사적 가치가 높아 일찍

부터 주목받아 왔다.

고창 고인돌 유적은 죽림리·상갑리 일대의 유적으로 한국 최대의 고인돌군을 이루고 있다. 죽림리 매산 마을을 중심으로 동서 방향 약 1.8km 범위에 걸쳐 442기의 고인돌이 분포한다. 이 곳의 고인돌은 해발 15~65m의 등고선을 따라 일정한 높이에 열지어 놓여 있다. 유적 앞에 고창천을 끼고 펼쳐져 있는 넓은 들판을 보면 이곳이 농사를 짓기에 알맞은 조건을 갖추고 있음을 한눈에 알 수 있다. 따라서 당시 이 지역에는 규모가 큰 집단이 살았던 것으로 짐작된다. 유적의 강 건너 마을 도산리에도 고인돌이 여러 개 남아 있다. 고창 고인돌 유적은 1990년에 사적 제391호로 지정되었으며 행정구역에 따라 상갑리·죽림리·도산리 3개 지역으로 나누어지고, 각 지역 내에 모여 있는 상태에 따라 상갑리는 4개 지구, 죽림리는 6개 지구로 구분한다.

상갑리에는 4개 지구에 181기의 고인돌이 있는데, 1지구에 42기, 2지구에 43기, 3지구에 49기, 4지구에 47기가 무리지어 분포한다. 이 고인돌은 등고선을 따라 두 줄로 열지어 있는데, 이는 고창천이 흐르는 방향과 같다. 고인돌이 물이 흐르는 방향과 나란히 놓인 것은 강가에서 발견되는 고인돌 유적에서 흔히 볼 수 있다. 고인돌에 묻힌 사람의 영혼이 물길을 따라 흘러가도록 한 것으로, 당시 사람들의 내세관(來世觀)을 짐작할 수 있다.

고인돌 분포지역에서 산 정상부 쪽으로 23개 지역

▼ 고창 죽림리 고인돌군



▼ 고창 죽림리 고인돌





▲ 강화 부근리 고인돌

에서 돌감을 채취했던 흔적이 발견되어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돌감을 구해 썼음을 알 수 있다. 돌감을 떼어낸 자국이 아직도 관찰되고 돌부스러기들이 수북이 쌓인 것을 보면 그 때 사람들의 돌 다루는 솜씨를 느낄 수 있다.

화순 고인돌 유적은 영산강의 지류인 지석강 주변의 들판을 배경으로 남쪽 산기슭에 분포한다. 화순 도곡면 효산리와 춘양면 대신리를 잇는 보검재라는 고개의 양쪽 계곡 일대 10km에 걸쳐 고인돌들이 자리잡고 있다. 마을 앞 평지와 마을 안에도 있지만 대부분 계곡 동쪽의 산기슭을 따라 무리지어 분포한다. 대신리에는 해발 65~125m에, 효산리에는 해발 45~90m에 분포하고 있어 꽤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화순 고인돌 유적은 숲 속에 자리잡고 있어 심하게 훼손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어느 유적과 견주어 보아도 보존상태가 좋다.

효산리에는 6개 지구에 250여 기의 고인돌이 분포한다. 유적 일대에는 1100여 개의 석재들이 흩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 고인돌까지 드러난 고인돌이 25기, 뚜껑돌만 보이는 고인돌이 133기, 뚜껑돌의 일부가 묻혀 있거나 무너진 고인돌이 100기 정도이다. 유적의 동쪽 산 7곳에는 돌감을 떼어 낸 흔적이 있는 암반도 보인다. 고인돌 형식은 탁자식과 바둑판식이 대부분

이나 탁자식이 변형되어 지상 석곽 형태를 띤 것도 있다. 뚜껑돌에 알구멍[性穴]을 새긴 것, 암벽에서 떼어낸 흔적이 남아있는 것들도 있다.

대신리에는 6개 지구에 300여 기의 고인돌이 분포한다. 이 곳에서는 3500여 개의 석재가 발견되었는데, 그 가운데 고인돌이 보이는 고인돌이 22기, 뚜껑돌만 보이는 고인돌이 105기, 그 밖에 일부가 묻혀있거나 무너진 고인돌이 190여 기 정도 확인되었다. 바둑판식 고인돌도 23기가 있다. 대신리에도 돌감을 떼어 온 채석장이 1곳 남아있다. 이 채석장은 화산암 계통의 응회암 덩어리가 노출되어 있고 암벽면에 두께 60cm 안팎의 돌결이 나 있어 돌을 떼어 내기에 좋은 구조를 갖추었다. 암벽 언저리에는 떼어 낸 돌, 떼어 내다 만 돌, 운반하던 돌 등이 남아 있어 고인돌 축조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산교육장 역할을 한다. 대신리 6지구 제7호 고인돌은 지금까지 한국에서 발견된 고인돌 중 가장 큰데 뚜껑돌의 길이가 7.3m, 너비가 5m, 두께가 4m나 되며 무게는 300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계곡 정상부 가까이 가장 높은 곳에 자리잡고 있어 중요한 인물의 무덤이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강화 고인돌 유적은 역사적 중요성 때문에 일찍부터 주목을 받아왔다. 강화도는 선사시대 이래로 한국

역사의 맥을 면면히 이어오는 곳으로, 고인돌은 삼랑성, 참성단과 더불어 단군과 고조선의 역사를 알려주는 중요한 유적이다. 강화 고인돌은 주로 고려산 북쪽 산기슭에 분포하는데 이 산을 중심으로 127기의 고인돌이 남아있다. 그 가운데 44기는 탁자식이고 35기는 바둑판식이다. 강화도 일대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고인돌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현재는 부근리, 삼거리, 고천리, 오상리, 교산리 등 5개 지역에만 무리지어 남아있다. 교산리와 고천리 고인돌은 산마루에 자리잡고 있으며, 부근리와 삼거리 고인돌은 평지에 분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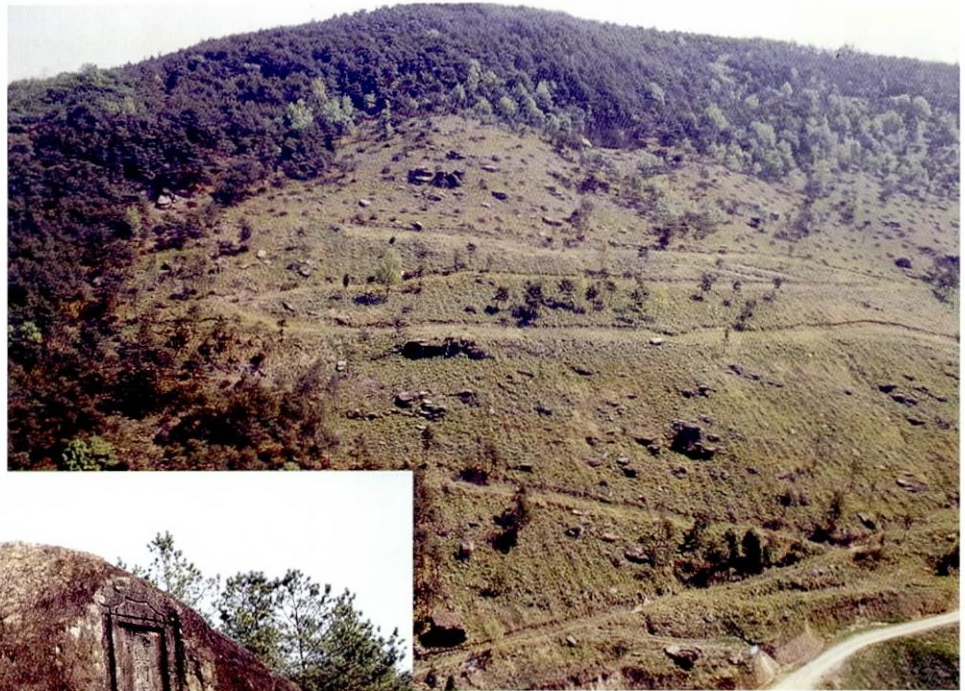
부근리 고인돌은 고려산 북쪽 봉우리인 시루메산의 능선 끝자락인 하점면 부근리 밭 가운데 우뚝 서 있다. 가장 널리 알려진 이 고인돌은 탁자식 고인돌로 길이가 7.1m나 되는 거대한 뚜껑돌을 높이 2.6m의 고임돌 2개가 받치고 있는데, 한쪽으로 기울어 쓰러질 듯 위태로워 보인다. 고임돌의 수에 대해서는 학자에 따라

의견이 다르다. 4개의 고임돌이 상자 모양의 벽을 이루어 뚜껑돌을 받치고 있었다는 주장과 지금처럼 2개가 마주 보았다는 주장이 있다. 또 일부 학자 중에는 부근리 고인돌이 무덤이라기보다 제단 구실을 했다는 의견도 있다. 고창 도산리에 있는 탁자식 고인돌도 부근리 고인돌과 생김새가 같은데, 이것도 제단의 구실을 했다고 주장한다.

교산리 고인돌과 고천리 고인돌은 산마루에 자리잡고 있다. 교산리 고인돌은 해발200m 봉천산 북쪽 산마루에 11기가 있다. 고천리에는 고려산 서쪽 봉우리인 낙조봉에 19기가 모여있다. 이와 같이 산마루에 자리잡은 고인돌은 경기도 파주 교하리·옥석리 유적이거나 황해도·평안남도 지역에서도 보인다.

오상리 고인돌은 낙조봉 남쪽 내가면 오상리에 있다. 탁자식을 비롯한 12기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며 최근에 행해진 발굴 조사에서 구조 형식이 일부 밝혀졌다.

▶ 화순 고인돌군 전경



◀ 화순 대신리 고인돌



中 國 文 字  
에 달아

그 해는 신년이라 하니  
이 해는 신년이라 하니  
이 해는 신년이라 하니

承政院  
甲午七月

甲午十一月 日記

秘著監上  
乙未四月

乙巳三月 日記  
奎章閣  
隆熙元年十二月

MADE IN KOREA

세계기록유산

훈민정음  
조선왕조실록  
직지심체요절  
승정원일기



# 훈민정음



▲ 훈민정음 해례의 용자례

**한**국의 공용문자는 한글이다. 한글은 20세기초에 만든 명칭인데, 한민족 또는 위대하다를 뜻하는 '한'과 글자를 뜻하는 '글'로 이루어진 복합어이다. 한글은 1443년 조선 제4대 임금인 세종(1418~1450)에 의해 창제되었다. 세종은 그때까지 사용되던 한자가 한국어와 구조가 사뭇 다른 중국어의 표기를 위한 문자체계이므로 대다수 한국민이 배워서 사용할 수 없는 사실을 안타까워하여 1443년 음력 12월에 한국어의 표기에 적합한 문자체계를 완성하고, 백성을 가르치는 올바른 소리란 뜻으로 훈민정음이라

명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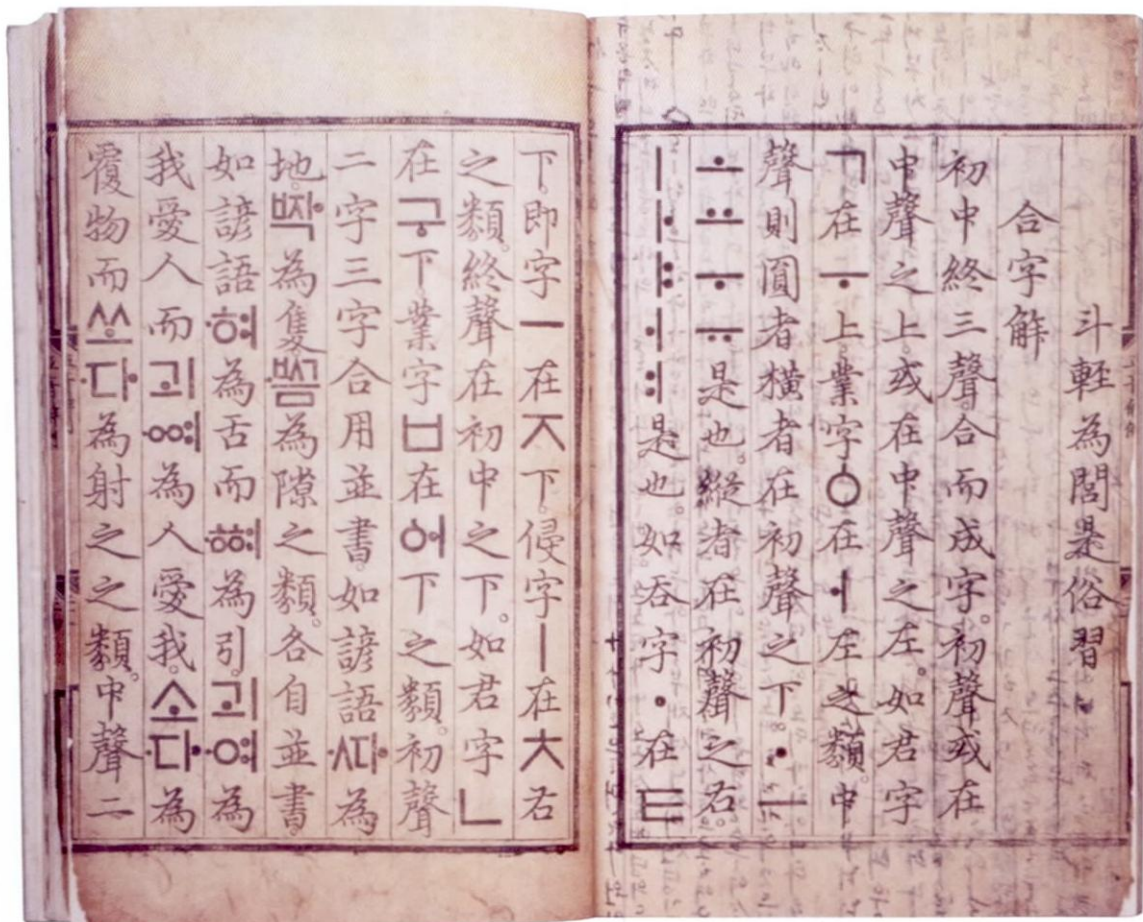
훈민정음은 모두 28자로 만들어졌으나, 오늘날에는 24자만 사용되고 있다. 훈민정음은 한국어를 완벽하게 표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배우기와 사용하기에 편리한 문자체계를 지니고 있어, 문자체계 자체로도 독창적이며 과학적이라고 인정되고 있다.

세종은 서문에 창제의 목적을 밝히면서 문자 하나 하나에 대하여 개괄적인 예시와 설명의 글을 짓고 집현전 학자들에게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용례를 짓도록 한 다음 1446년 음력 9월 책을 출판하여 백성들

訓民正音

國之語音異乎中國與文字  
不相流通故愚民有所欲言  
而終不得伸其情者多矣予  
為此憫然新制二十八字欲  
使人人易習便於日用矣  
ㄱ 牙音如君字初發聲





▲ 훈민정음 해례의 합자례

에게 널리 공표하였다. 책으로서의 훈민정음은 훈민정음 해례본(훈민정음에 대한 해설과 용례를 보인 책)이라고 구별하여 부르기도 한다.

책이 출판된 정확한 날짜는 분명하지 않지만, 당시 국가의 공식기록인 『세종실록』에 1446년 음력 9월에 이 책이 완성되었다고 적혀 있고, 이 책 위에 실린 정인지의 서문이 1446년 음력 9월 상순에 쓰여졌다고 되어 있으므로 늦어도 1446년 음력 9월 10일에는 출판되었다고 판단된다. 음력 9월 10일을 양력으로 환산하여 10월9일을 한글날로 지정하여 국가적으로 경축하고 있다.

책 훈민정음은 약 550년 전에 출판되었으므로, 오래전부터 없어진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한 책이 1940년 경상북도 안동시의 한 고가(古家)에서 우연히 발견되었고 현재는 서울의 간송미술관에 보관되어 있으며 1958년 국보로 지정되어 보존·관리 되고 있다. 이 책은 두 부분으로 되었는데, 제1부는 세종이 지은 것으로 책의 본문에 해당된다. 본문의 내용은 새문자를

창제한 목적을 천명한 훈민정음 서문과, 새문자 28자를 초성 17자와 중성 11자로 나누어 차례로 예시하고 설명한 다음에 이들을 결합하여 한국어를 표기하는 방법을 제시한 예규로 되어 있다. 제2부는 세종의 명령에 따라서 집현전의 젊은 학자들이 지은 것으로, 본문에 대한 주석에 해당된다. 그것은 새문자의 제작 원리를 설명한 제자해, 음절 두음을 표기하는 자음 17자를 설명한 초성해, 모음 11자를 설명한 중성해, 음절 말지음을 설명한 종성해, 초성·중성·종성이 결합하여 음절을 표기하는 방법을 설명한 합자해, 새문자로서 한국어 단어를 표기한 예를 보인 용자례의 6장으로 나뉜다. 끝에는 새문자 창제의 위대함과 이 책 저술의 경위를 요령있게 서술한 정인지의 훈민정음 해례본 서문이 붙어있다. 전체 분량이 본문 4장, 주석과 정인지의 서문 29장으로 된 33장에 지나지 않으나, 이론 전체가 정연하고 서술이 과학적인 내용의 책이다. 특히 문자를 만든 원리와 문자 사용에 대한 설명에 나타나는 이론은 현대 세계의 언어학자들이 높이 평가

하고 있다. 세계 역사에서 많은 민족이 자기의 언어를 표기하기 위하여 문자를 만들려고 노력하였으며, 이것은 세계 역사상 주요한 주제의 하나였다.

세계의 주요한 문자는 오랜 기간에 걸쳐 서서히 형성되어 사용되었고, 그 밖의 대부분의 문자는 그것이 변용되어 사용되었다. 일정한 시기에 특정한 사람이 이미 존재한 문자에서 직접적으로 영향받지 않고 독창적으로 새 문자를 만들고 그 문자로써 한 언어의 문자화에 성공하여 한 국가의 공용 문자로 사용하게 한 경우는 우리나라의 한글이 유일한 예이다. 더욱이 새 문자에 대한 해설을 책으로 출판한 것은 이 훈민정음이 출판된 1446년 이전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이후에도 없는 일이다.

훈민정음과 같은 유일한 책이 훌륭한 내용으로 1446년에 출판된 것은 세계 역사의 한 사건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소중한 책이 비록 일부이지만 고스란히 전래의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책 훈민정음은 한국의 국보이면서, 나아가 세계의 기록유산으로 영구히 보존되고 이용되어야 할 가치를 지니고 있다.



▲ 비단과 종이에 싸여있는 훈민정음

# 조선왕조실록



▲ 태조실록과 태종실록

**조** 선왕조실록은 조선의 태조에서 25대 철종 말까지 472년간(1392~1863)의 역사를 목록 형식으로 편찬한 편년체사서(編年體史書)이며 1,893권, 888책으로 되어있는 대질(大帙)의 역사서이다. 조선왕조실록이 단일 왕조의 역사서로 세계에서 가장 긴 세월에 걸쳐 대를 이어오면서 편찬 간행한 시리즈적 역사서로 세계가 아껴야 할 기록유산으로 자랑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세계성을 지닌 역사적 문화유산이기 때문이다.

첫째, 조선왕조실록은 한 왕조의 역사적 기록으로 세계에서 가장 장구한 세월에 걸친 실록이다. 세계적으로

알려진 중국의 『황명실록(皇明實錄)』은 260년간 13대 군주의 실록이고 『대청역조실록(大清歷朝實錄)』도 296년간에 걸친 실록으로 유명하다. 이에 대하여 조선왕조실록은 25대 군주의 실록이며, 472년간의 역사를 수록한 것이기에 세계의 왕조별 실록 가운데 가장 긴 시대의 역사를 담은 역사서이다.

둘째, 조선왕조실록은 가장 풍부한 내용을 담은 세계적인 역사서이다. 당(唐)나라에서 처음 실록 편찬의 역사가 시작된 후 중국은 물론 일본이나 월남에서도 실록이 편찬되었다. 일본의 『삼대실록(三代實錄)』은



▲ 규장각 서고에 있는 조선왕조실록



▲ 인조실록 제1장

비교도 되지 않은 빈약한 것이고, 월남원조(越南院朝, 1802~1945)의 실록인 『대남실록(大南寔錄)』은 548권으로 편성된 실록이다. 중국의 『황명실록』은 2,964권으로 된 대질(大歷)의 것이기 때문에, 권수로는 1,893권으로 된 조선왕조실록을 능가한다. 그러나 매권의 기사량이 조선왕조실록에 비해 소량(少量)이므로 권수만 많을 뿐 실록의 기록내용은 소략(小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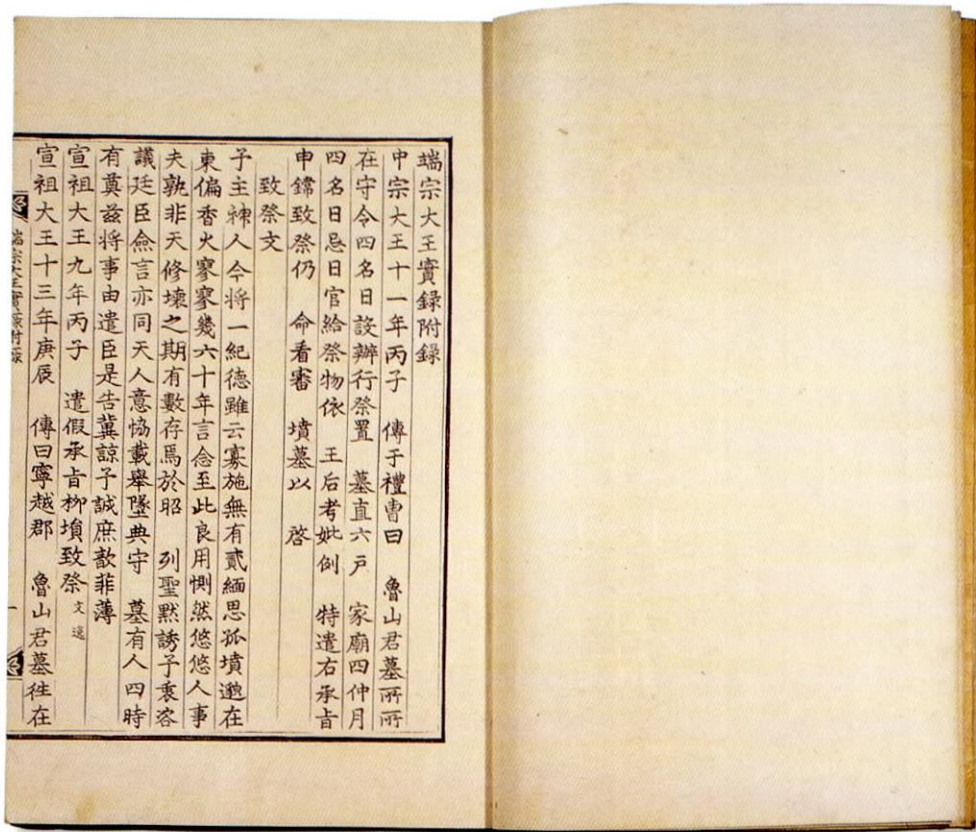
셋째로, 조선왕조실록은 수록 기록이 다른 실록을 압도할 만치 다양하여 가히 백과전서적 역사서라고 이해되고 있다. 조선왕조실록은 그 내용이 국정 전반에 걸쳐 기록되었지만, 조선시대의 정치·외교·사회·경제·학예·종교생활로부터 천문·지리·음악·과학적 사실이나 자연 재난이나 천문현상과 동북아시아 주변국가와의 외교적 관계가 수록되어 있는 종합사서요, 민족문화서인 것이다. 또한 위로는 국왕에서 아래로는 서민에 이르기까지의 생활기록이 담겨져 있을 만큼 계급을 뛰어 넘는 생활사적인 기록서인 것이다. 그러기에 오늘날 한국사 연구자는 물론 역사적 관심을 지닌 교양인들도 조선시대의 생활의 구체상을 밝힘에 널리 활용하고 있다.

넷째, 조선왕조실록은 그 역사기술에 있어 진실성과 신빙성이 매우 높은 역사 기록물이다. 국가적 편찬 사업에 의해 편찬 출간된 조선왕조실록의 기초자료 작성에서 실제 편술까지의 편수 간행작업에 직접적 관계를 가졌던 관원(官員)은 사관(史官)이었다. 사관은 관직으로서의 독립성과 기술에 대한 비밀성을 제도적으로 보장받던 전문적 역사편찬 관료였다. 사관은 평소 국왕 동정과 국정운영을 적어두는 시정기(時政記)와 사초(史草)를 작성하여야 했다. 이러한 사관의 평소 기록과 각 기관의 공적문서와 그 밖의 개인기록 등이 왕조실록 편찬의 기본자료로 이용되었다. 사관의 사초(실록편술의 기본이 되는 기록)는 군주라해도 함부로 열람할 수 없고, 비밀이 보장되는 제도적 장치가 이 실록의 내용인 역사적 사실에 대한 진실성과 신빙성을 뒷받침하였다.

다섯째로, 활자로 인쇄 간행된 조선왕조실록은 한국 인쇄 문화의 전통과 높은 문화수준을 보여주는 역사서이다. 태조(1392~1398)에서 태종(1401~1418)까지 조선시대 초기 3대 국왕의 실록은 필사본(筆寫本)으로 간행되었으나 세종(1418~1450) 이후는 아름다운 활자로 인쇄 간행되었다. 실록의 인쇄간행은 중국이나 일본의 경우에는 그 예가 없다. 조선은 세계적으로 금속활자를 가장 앞서 실용한 고려시대 활자문화의 전통을 이어, 활자개량에 힘쓰고, 활자를 대량 주조하여 각종 관찬(官撰)의 도서를 간행해 온 전통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여섯째, 조선말기까지 이들 실록이 완전하게 보존되어 온 것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 보기 힘든 일이다. 선왕(先王)의 실록편찬사업이 끝나면 최종원고를 활자본으로 4부를 인쇄하여 서울의 춘추관(春秋館)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각지의 깊은 산중에 소재한 사고에 보관하여 후세까지 안전하게 전하도록 보관되었다. 이 귀중한 전적(典籍)문화유산이 오늘날까지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은 역사적 기록을 중히 여겨 오던 한국인들의 문화의식과 조선시대에 귀중 전적을 국가적 사업으로 편찬 간행해 온 관찬(官撰)사업이 활발했던 문화전통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끝으로, 조선왕조실록은 일본·만주·중국·유구·몽고 등 동아시아 제국의 역사연구, 관계사 연구에도 귀중한 기본 사료이기도 하다. 또한, 유럽 각국과 미국 등의 근대 식민주의적 해외진출의 역사를 밝힘에도 유용한 사료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검토해 보면 조선은 결코 쇠국(鎖國)을 고집한 나라가 아니라, 중국·일본 및 유구와 활발한 국교관계를 가지고 정치·경제와 문화교류를 가졌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그것이 동아시아적 개방국체체제 내의 역사적 교류였고, 17~18세기의 유럽식민주의 국가 세력에 대해서는 강한 거부자세를 대응하면서 점차적으로 유럽문화와 접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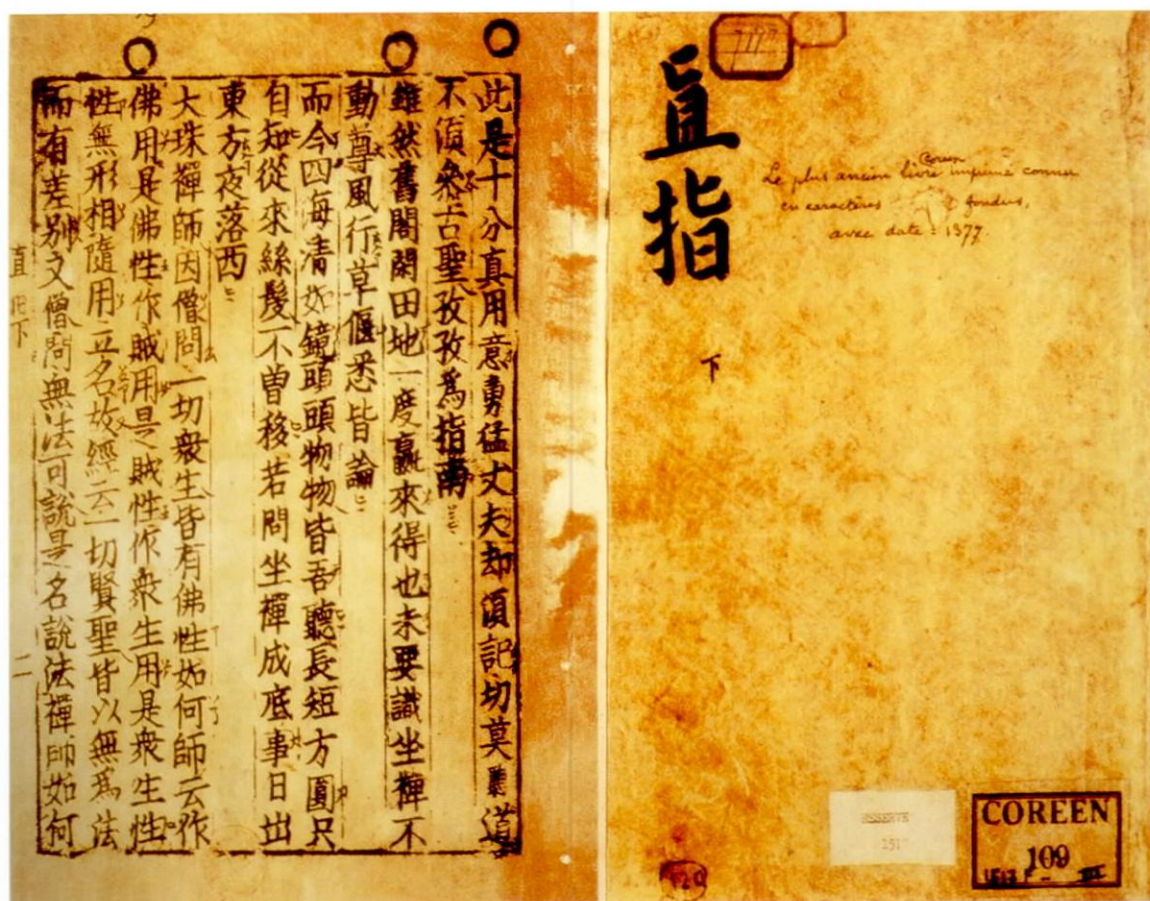


▲ 단종실록의 부록



▲ 순종, 헌종, 철종실록

# 직지심체요절



▲ 직지심체요절 하권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이하 불조직지심체요절이라 함)은 백운화상이 75세였던 고려 공민왕 21년(1372)에 노안을 무릅쓰고, 선도(禪徒)들에게 선도(禪道)와 선관(禪觀)의 안목을 자각(自覺)케 하고자 함은 물론, 선풍(禪風)을 전등(傳燈)하여 법맥(法脈)을 계승케 하고자 저술한 것으로서, 그 제자 석찬과 달담이 비구니 묘덕의 시주를 받아 청주 흥덕사에서 1377년 7월에 금속활자로 인쇄하였다.

『불조직지심체요절』은 『경덕전등록(景德傳燈錄)』,

『선문염송집(禪門拈頌集)』 등의 사전부(史傳部)의 여러 불서(佛書)를 섭렵하고 역대의 여러 불조사(諸佛祖師)의 계(偈), 송(頌), 찬(讚), 가(歌), 명(銘), 서(書), 법어(法語), 문답(問答) 중에서 선(禪)의 요체(要諦)를 깨닫는데 필요한 것만을 초록(抄錄)하여 찬술(撰述)한 것이 그 주된 내용이다.

『불조직지심체요절』의 '직지심체'는 "직지인심견성성불(直指人心 見性成佛)"이라는 수신오도(修身悟道)의 명귀에서 채록한 것으로 '참선하여 사람의 마음을 직시(直視)하면, 그 심성이 곧 부처님의 마음

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다.

본서는 우리나라의 학승(學僧)들이 대교과(大敎科)를 마치고 수의과(隨意科)에서 공부하는데 사용되는 대표적인 학습서이다.

『불조직지심체요절』의 찬자(撰者)인 백운화상(白雲和尚)은 백운이 그의 호이며, 법명(法名)은 경한(景閑)이다. 그는 고려 충렬왕 24년(1298)에 전라도 고부(古阜)에서 출생하여, 공민왕 23년(1374)에 여주(驪州)의 취암사(鷲巖寺)에서 77세를 일기로 입적(入寂)하였다.

화상은 어려서 출가하여 불학(佛學)을 익히고 수도하는 데에만 전념하였다. 후에 백운화상은 중국 호주(湖州) 하무산(霞霧山) 천호암(天湖庵)의 석옥청공(石屋淸珙)화상으로부터 직접 심법(心法)을 전수 받았으며, 인도의 지공(指空) 화상에게서도 직접 법(法)을 물어 도(道)를 깨달았다.

귀국한 뒤에는 태고 보우국사(太古普愚國師, 1301~1382)나 혜근 나옹화상(惠勤懶翁和尚, 1320~1376)과 더불어 대선사(大禪師)로서 어깨를 나란히 하였다. 뿐만 아니라 황해도 해주(海州)의 안국사

(安國寺)에서 11년 동안이나 선림(禪林)의 정업(精業)에 전력하였고, 뒤에는 해주의 신광사(神光寺)에서 후학들을 계도(啓導)하였다.

『불조직지심체요절』이 해외로 유출된 경위는 조선 시대 고종때 주한 불란서대리공사로 서울에서 근무한바 있는 콜랭 드 플랑시(Collin de Plancy)가 수집해간 장서에 포함되어 있던 것이 그후 골동품수집가였던 앙리베베르(Henry Vever)에게 넘어갔으며 그가 1950년에 사망하자 유언에 따라 프랑스국립도서관으로 이관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책은 상·하 2권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하권만이 유일하게 프랑스에 소장되어 있다. 하권은 39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째장은 없고 2장부터 39장까지 총 38장만이 보존되고 있다.

흥덕사(興德寺)의 창건년대와 규모는 알 수 없으나, 『불조직지심체요절』 하권 간기에 고려 우왕 3년(1377)에 청주 흥덕사에서 금속활자로 책을 인쇄하였음을 명기(宣光七年丁巳七月日 淸州牧外興德寺鑄字印施)하고 있는데, 이것은 독일의 구텐베르크보다



▲ 청주흥덕사지



名爲智。智。能入覺。不思議。

承古禪師常勸諸人莫學佛法。但自無心去。利根人盡時。解脫鈍根人。或三五年。遠不過十年。若不悟去。老僧替你入拔舌。

白雲和尚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卷下

宣光七年丁巳七月日  
清州牧外興德  
寺鑄字印施

70여년이나 앞선 것으로 1972년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도서의 해”에 출품되어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활자본으로 공인된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은 직지를 간행한 흥덕사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었지만, 1985년 발굴조사 결과 출토된 청동으로 만든 북(靑銅禁口)과 청동불발(靑銅佛鉢)에 “西原府 興德寺(서원부 흥덕사; 서원은 신라때 청주의 이름)”라는 글자(銘文)가 음각되어 있어 이곳이 바로 『백운화상초록불조 직지심체요절』을 간행한 흥덕사임을 입증하게 되었으며, 바로 그 자리에 1992년에 청주고인쇄 박물관을 세워 찬란했던 인쇄문화를 알리는 국민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 책은 금속활자를 이용하여 인쇄하였는데, 인쇄술을 보다 편리하고 경제적이며 교정을 쉽게 해주었기 때문에 책의 신속한 생산에 공헌하였다. 또한 활자 인쇄술에 적합한 먹, 즉 기름먹을 발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실용적인 활판 인쇄술은 동양 인쇄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고, 유럽등지로 전파된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은 이러한 가치를 인정받아 2001년 9월 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되었다.



▲ 직지심체요절목판본

# 승정원일기



▲ 승정원 일기의 내부

승정원은 조선 정종대에 창설된 기관으로서 국가의 모든 기밀을 취급하던 국왕의 비서실이라 할 수 있는 곳으로, 1623년(인조1) 3월부터 1894년(고종 31) 6월까지 272년간 승정원에서 처리한 국정 기록과 승선원, 궁내부, 비서감, 규장각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1910년(융희 4)까지 총 3,243책의 기록이 남아 있다.

『승정원일기』는 조선 최대의 기밀 기록인 동시에 사료적 가치에 있어서 『조선왕조실록』, 『일성록』, 『비변사등록』과 같이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세계에 자랑할 만한 자료이다. 또한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조선왕조실록』을 편찬할 때 기본 자료로 이용하였으며, 원본 1부 밖에 없는 귀중한 자료로서 국보 제303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또한 세계 최대 및 1차 사료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2001년 9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되었다.

이 책에 관여한 사람들은 정3품 승지 6명, 정7품 주서 2명이며, 도승지는 이조, 좌승지는 병조, 우승지는 호조, 좌부승지는 예조, 우부승지는 공조, 동부승지는 형조가 공사를 나누어 담당하였다. 주서가 기록을 담당했고, 그가 자리를 비우면 가주서가 대신 그 일을



▶ 7책의 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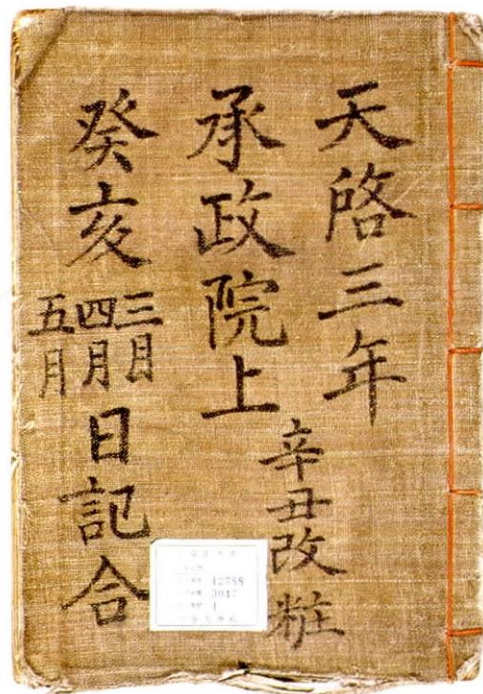


말았다. 전쟁기사는 임진왜란이 일어난 뒤 전쟁에 관한 사실을 기록하기 위해 임시로 설치한 사변가 주서가 담당했다.

『승정원 일기』의 내용은 국정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사실의 기록으로 계품(啓稟), 전지(傳旨), 청패(請牌), 청추(請推), 정사(呈辭), 상소(上疏), 선유(宣諭), 전교(傳敎) 등에 관한 것이다. 이 책의 기재 방식은 한 달을 기준으로 책머리에 월간 경연상황, 내전(內殿)의 동향을 기록하고 다음으로 승정원의 관리 및 당직자의 표시와 출근실태를 표시하고 마지막에 승정원의 업무현황, 왕 및 내전의 문안, 승정원의 인사관계(人事關係) 등의 내용을 실었다.

『승정원일기』는 일기식으로 한달에 1책씩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후기로 올수록 내용이 많아져 한 달에 2책 이상이 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조선 건국 초부터 정리되었으나 조선전기분은 임진왜란 등의 병화(兵火)로 대부분 소실되었고 현재는 3,243책만이 남아 있으며, 국사(國史)연구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외교, 문화, 군사 등 모든 학문 연구에 필수적인 자료이다.

그 사료적 가치는 중국의 『중국 25사』(3,386책, 약 4,000만자) 및 우리나라 『조선왕조실록』(888책)보다 더 방대한 세계 최대의 연대 기록물(총 3,243책, 글자수 2억4천250만자)이며, 『조선왕조실록』이 국왕 사후 사관들에 의해 편집된 2차 자료라면 『승정원 일기』는 당시의 정치·경제·국방·사회·문화 등에 대한 생생한 역사를 그대로 기록한 1차 자료라는



▲ 승정원 일기의 표지



天啓三年 三月十二日壬寅

李德洞

俞晉曾

鄭 宣

權 盡

權盡已

閔聖徵

上在昌德宮○夜二更期會于洪濟院金瑬為大將

上率親兵至延曙驛迎李曙軍長滿兵七百餘人金瑬李貴沈器遠崔

鳴吉金自點宋英望申景裕等所領諸軍六七十人夜三鼓至軒義

門斬關而入遇宣傳官伺察城門者前軍斬之遂鼓噪而進直至昌

德宮李興立陳於關門洞口抽兵不動哨官李沅問敦化門義兵直

入關內衛士皆散光海由後苑門出走兵入寢殿燃炬披覓火

正訖蓋目燒諸殿 上踰繩不坐仁政殿階上禁中直宿之官皆

伏捕都承旨李德洞輔德尹知敬奎兩人初皆不拜審知義舉力

注 書 崔夢亮

점에 있다. 고종 31년(1894) 갑오경장 이후의 일기 내용은 일제에 의한 내정 간섭기 궁중기록이므로 조선왕(황제)의 결제를 요하는 사건과 기타 궁중의 비화를 기록한 것이므로 근대사 연구의 1차 기본 사료가 된다.

또한 17세기부터 20세기초까지 300년간의 국문학의 변천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국문학적 가치가 인정되고 있다. 『승정원일기』에는 288년간 매일의 날씨 정보를 기록하고 있는데, 특히 『조선왕조실록』의 날짜는 60갑자로만 표기되어 있어 오늘날 우리가 쓰는 태양력으로 환산하는 데 많은 혼란을 겪고 있으나 『승정원 일기』는 60갑자와 수시력역법의 일자를 동시에 표기하고 있다. 이와함께 전통적인 유교사회 내부로부터 자생적인 천주교 수용이 민중들 사이에 어떻게 전개되었으며 이에 대한 정치권의 대응 등을 자세히 살필 수 있는 역사의 기초자료로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조선 전기의 『승정원일기』는 승정원에 보관되어 있었으나, 임진왜란 때 대부분 불타버리고 말았으며, 1592년 임진왜란 이후 1623년까지의 일기도 이괄의 난 때 거의 불에 타버렸다. 인조 때 1592년 이후의 일기를 보수하였으나 영조 20년(1744) 승정원에 불이 나면서 모두 타버렸다. 지금까지 전해오는 일기 역시 보수한 부분이 상당히 많으나 보수에 최선을 다하였기 때문에 그 역사적 가치는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승정원일기』 원본은 보존을 위하여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영인본 승정원일기』(국사편찬위원회 1961~1977 간행)와 철종2년(1851)부터 순종 4년(1910)까지의 일기 필사본은 정신문화연구원에서 인터넷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영인본 전체를 디지털화하여 인터넷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 규장각의 서고





세계무형유산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



#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



▲ 제관들이 정전앞에서 절하는 모습

**종**묘제례란 종묘에서 행하는 제향의식으로, 조선 시대의 나라제사중 규모가 크고 중요한 제사였기 때문에 종묘대제(宗廟大祭)라고도 한다. 종묘는 조선시대 역대 왕과 왕비, 그리고 나라에 공적이 있는 공신들의 신주를 모셔 놓은 사당으로, 사직과 더불어 국가의 근본을 상징하는 가장 정제되고 장엄한 건축물이다. 종묘 정전의 19개 신실에는 태조를 비롯한 19분의 왕과 왕비 30분의 신주가 모셔져 있으며, 영녕전 16실에는 추존된 왕과 왕비의 신위 등 33분의 신주가 봉안되어 있다.

종묘제례는 왕실에서 거행되는 장엄한 국가제사이며, 임금이 친히 받드는 존엄한 길례였다. 유교 사회에서는 길례(吉禮)·흉례(凶禮)·군례(軍禮)·빈례(賓禮)·가례(家禮)의 다섯 의례(五禮) 중 길례인 제사를 으뜸으로 여겼으며, 이를 '효' 실천의 근본으로 삼았다. 유교가 국가의 근본이념이었던 조선시대에도 조상에 대한 숭배를 인간의 도리이자 나라를 다스리는 가장 중요한 법도로 여겨 제사를 특히 중시하였으며, 예로부터 종묘와 사직을 세우고 나라를 건국하고 번영시킨 왕과 왕실의 조상과

국가 발전에 공헌한 문무대신들에게 제사를 드렸다.

종묘제례는 크게 정시제(定時祭)와 임시제(臨時祭)로 나뉘며, 계절에 따라 햇과일이나 곡식을 올리는 천신제(薦新祭)도 있었다. 정시제는 봄·여름·가을·겨울의 첫달인 1월·4월·7월·10월과 납일(臘日: 12월에 낱을 잡아 지내는 선달제사)에 지냈으며, 임시제는 나라에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있을 때마다 지냈다. 이러한 종묘제례는 해방이후 한때 폐지되었다가 1969년부터 전주이씨대동종약원이 행사를 주관하여 현재는 매년 5월(양력) 첫 번째 일요일에 봉행되고 있다.

종묘제례는 제사를 지내는 예법과 예절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의식이기 때문에 제례는 매우 엄격하고 장엄하게 진행된다. 종묘제례의 절차는 신을 맞이하는 절차, 신이 즐기도록 하는 절차, 신을 보내드리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절차를 보면 선행절차 → 취위(就位) → 영신(迎神) → 신관례(神祿禮) → 진찬(進饌) → 초헌례(初獻禮) → 아헌례(亞獻禮) → 종헌례(終獻禮) → 음복례(飲福禮) → 철변두(撤籩豆) → 송신(送神) → 망료(望燎) → 제후처리(祭後處理)의 순서로 진행된다.

종묘제례는 최고의 품격을 갖추고 유교절차에 따라 거행되는 왕실의례이며, 이를 통해 동양의 기본이념인 '효'를 국가차원에서 실천함으로써 민족공동체의 유대감과 질서를 형성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와 함께 종묘라는 조형적인 건축공간에서 진행되는 종묘제례의 장엄하고 정제된 아름다움은 자연과 어우러진 동양적 종합예술의 정수이며, 500년이라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우리의 소중한 정신적 문화유산이다.

종묘제례악은 조선의 역대 임금과 왕비의 위패를 모신 종묘에서 제사를 드릴 때 의식을 장엄하게 치르기 위하여 연주하는 기악(樂)과 노래(歌)·춤(舞)을 말한다. 이는 조선 세종때 궁중연회에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보태평(保太平)과 정대업(定大業)에 연원을 두고 있으며, 세조10년(1464) 제례에 필요한 악곡이 첨가되면서 종묘제례악으로 정식 채택되었다. 종묘제례악은 이후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일시적으로 약화되거나 중단되기도 하였지만, 영조때 일부 변화를 거치면서 오늘날까지 전승되고 있다.

종묘제례악은 제례가 진행되는 동안 각각의 절차에 따라 보태평과 정대업 11곡이 서로 다른 악기로



▲ 제관들이 신실로 걸어오는 모습



▲ 제관들이 신실에서 제례드리는 모습

연주된다. 정전 앞 계단 위(상월대)에서 노랫말이 없는 음악을 연주하는 악단은 등가(登歌)라 부르고, 계단 아래 뜰(하월대)에서 노랫말 있는 음악을 연주하는 악단은 헌가(軒架)라고 부르는데, 악기편성은 시기에 따라 조금씩 변화를 보이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보태평과 정대업의 간결하고 힘찬 노래는 위대한 국가를 세우고 발전시킨 왕의 덕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종묘제례악이 연주되는 동안 문치와 무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무용(侑舞)인 문무(文舞)와 무무(武舞)가 곁들여 진다. 문무는 역대 선왕들의 문덕을 기리는 춤으로 보태평지악에 맞추어 왼손에는 피리종류인 약(簫)을 오른손에는 깃털을 단 적(翟)을 들고, 무무는 선왕들의 무공을 칭송하는 춤으로 정대업지악에 맞추어 나무로 만든

칼과 창, 활과 화살을 들었다.

종묘제례악은 종묘제례가 거행되는 종묘 공간에서 음양의 조화와 우주질서를 상징하는 음악과 노래와 춤이 어우러진 종합예술의 정수로서, 우리의 문화적 전통과 특성이 잘 나타나 있으면서도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동양적인 독특한 멋과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다. 특히 원래 그대로의 순수성을 잃지 않고 오늘날까지 500여년을 이어온다는 점은 한국문화로서가 아니라 세계문화로서 반드시 보존되어야 할 고귀한 가치로서 높이 평가된다.

종묘제례와 종묘제례악은 각각 중요무형문화재 제 56호와 제1호로 지정되어 보존·전승되고 있으며, 2001년 5월 18일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결작”으로 선정되었다.



▲ 종묘제례시의 상차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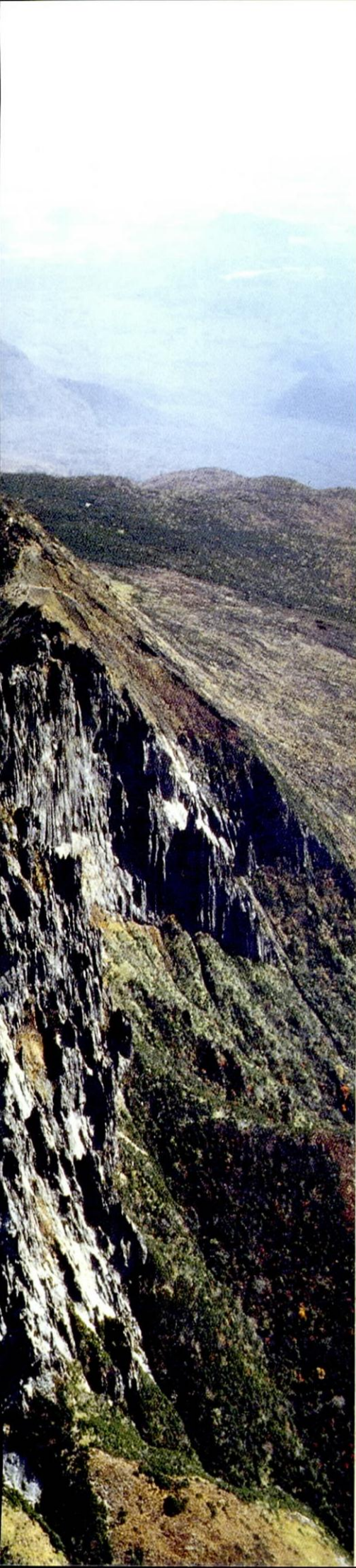
▲ 무무(정대업지무)



▲ 한가 연주



# 세계유산 잠정목록



삼년산성  
공주무령왕릉  
강진도요지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안동하회마을  
월성양동마을  
남해안일대 공룡화석지  
제주도 자연유산지구

# 삼년산성



▲ 삼년산성

**삼**년산성은 신라 제20대 자비왕(458~478) 13년인 470년 오정산의 능선을 따라 성을 축조하기 시작해서 3년만에 완성하였고, 그후 486년에 개축한 신라 시대 석축산성이다. 『삼국사기(三國史記)』에는 성을 쌓는데 3년이 걸렸기 때문에 삼년산성으로 부른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산성은 총 둘레가 1,680m에 이르고, 지형에 따라 축조되었기 때문에 성벽 높이는 13~20m로 일정하지 않다. 성벽은 장방형의 납작한 자연석을 한켜는 가로쌓기, 한켜는 세로쌓기로 축조하였기 때문에 매우 견고하며, 내외벽을 돌로만 쌓은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일부분의 내벽은 흙을 다져서 쌓은 경우도 있어 축조 방식에서 부분적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삼년산성에는 문지(門址) 4개소, 옹성 7개소, 우물터 5개소, 그리고 수구지(水口址) 등의 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문지는 동서남북에 모두 설치되어 있는데 너비는 대략 4.5m에 달하며, 수구는 지형상 가장 낮은 서쪽 방향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동쪽에는 지상에서 1m정도 높이의 성벽부분에 65×45 센티미터의 5각형 수문이 남아 있다. 옹성은 대략 둘레 25m, 높이 8.3m 정도로 지형상 적의 접근이 쉬운 능선과 연결되는



부분에 축조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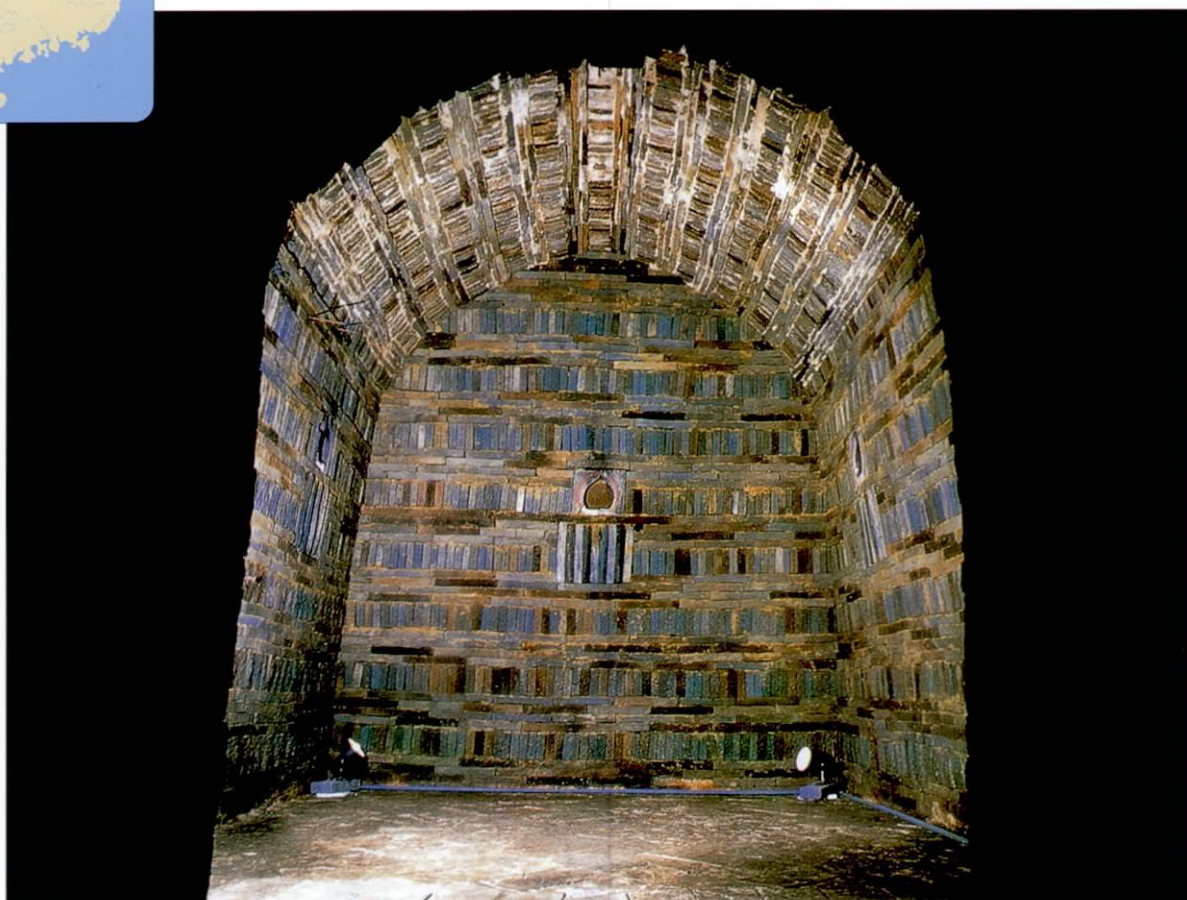
이 성은 신라시대에 축조되었으나 기록에 의하면 조선시대까지도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사실은 1983년에 발굴조사 결과 삼국시대에서 고려, 조선시대까지의 토기편과 각종 유물이 출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성벽과 성 내부지역에 대한 계속적인 발굴조사와 발굴결과에 따라 원형에 가까운 모습으로 복원되어 있다. 삼년산성은 삼국시대 이후 조선 시대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사용되어 온 것은 산성이 위치한 지역이 군사적 요충지일 뿐만 아니라, 성의 견고함과 수성의 용이함과도 관련된 것으로 생각된다.

성벽의 견고성은 현재 남아 있는 성벽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고대 축성법 연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삼년산성은 포곡(包谷)형 산성으로서 경주 지역의 대표적인 산성인 명활산성과, 남산성이 퇴폐적인 것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성을 축조한 지형과 관련된 것으로 삼년산성 성벽의 축조에 있어서도 두 가지 방식이 혼용되어 있다는 점에서 삼년산성이 지형의 특징을 고려해서 축조한 삼국시대 대표적인 산성중의 하나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 공주 무령왕릉



▲ 무령왕릉의 내부

**백**제의 고도인 공주를 북쪽에서 에워싸고 있는 이곳 송산(宋山)의 남쪽 경사면에 백제의 고분군이 자리잡고 있다. 송산리에 있는 고분들은 웅진도읍기에 재위하였던 백제의 왕들과 왕족들의 무덤으로 알려져 있다. 무령왕릉은 이들 7기의 고분중 송산리 7호분으로 알려진 백제 제25대 무령왕과 왕비가 합장된 능으로 1971년에 6호분 방수공사 중 우연히 발견되었다.

무령왕릉은 산 경사면의 풍화암반층을 파고 들어가서 벽돌을 쌓아 무덤방[玄室]과 널길[羨道]을 만들고 물길을 낸뒤 그 위에 아치형의 천장을 만든 벽돌무덤

[博築墳]이다. 무덤방은 크기가 남북 4.2m, 동서 2.72m, 높이 3.14m인 긴네모꼴의 단실이다. 무덤방의 네벽중 남 북벽은 바닥에서 천장까지 수직으로 쌓았으나, 동서벽은 벽면의 상부에 이르러 차츰 안으로 기울어져 아치형 천장을 구성하였다. 남쪽벽의 중앙에는 길이 2.9m, 너비 1.04m, 높이 1.45m 크기의 무덤방과 같은 모양으로 널길이 있다. 남벽을 제외한 무덤방의 벽면에는 동 서 양벽에 각 2개, 북벽에 1개, 모두 5개의 보주형등감(寶珠形燈籠)을 설치하였다. 벽을 쌓는 방법은 길이쌓기와 모쌓기를 번갈아 반복

하였는데, 아치형의 천장을 만들기 위해서 천장부분에 벽돌의 숫자와 형태를 달리하였다. 연꽃무늬가 새겨진 벽돌이 주로 사용되었으나 길이쌓기와 모쌓기 방식의 차이에 따라 벽돌 무늬에도 차이가 있다.

왕의 관은 동쪽, 왕비의 관은 서쪽에 있었는데, 이러한 위치는 중국식과 비슷하지만 무령왕릉이 남쪽으로 머리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북쪽으로 머리를 두는 중국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무령왕릉에서는 108종 2,906점에 달하는 각종 유물들이 출토되었는데, 금제관 장식을 포함한 왕과 왕비의 각종 치레거리(裝身具)들과 청자육이호(靑瓷六耳壺), 동발(銅鉢), 지석(誌石) 등의 유물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1971년에 발굴된 이후 무령왕릉은 현재 거의 원형

그대로 복원되어 있다. 무령왕릉은 발견된 지석의 기록을 통해서 삼국시대 왕릉 가운데 처음으로 피장자와 축조 연대를 정확히 밝혀주고 있을 뿐 아니라, 무덤 축조 이후 전혀 손상되지 않은 처녀분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삼국시대 고분연구에 있어 중요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무령왕릉에서 볼 수 있는 무덤의 형식과 꺼묻거리(副葬品)들은 당시 중국 남조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라는 점에서 백제 문화의 국제적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천장의 형태와 벽돌을 쌓는 방식에 있어서 독자적인 특징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 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 송산리 고분군 전경

# 강진 도요지



▲ 강진 대구면 도요지 근경

**전**라남도 강진군 대구면 용운리, 계율리, 사당리, 수동리 일대에는 고려시대에 청자와 토기를 구웠던 가마터가 180여개소에 집단으로 분포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보존상태가 좋은 98개소를 사적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 남쪽은 바다와 가까워 해로를 통한 수송이 발달했고, 북으로는 크고 작은 산과 가까워 땀감이 풍부하였다. 또한 도자기의 원료인 고령토와 규석이 산출되어 도자기를 만들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용운천 상류에 위치한 용운리에는 75개소의 가마

터가 남아 있고, 이 중 몇 곳을 제외한 대부분의 가마터는 10세기 후반에서 11세기 중엽에 걸쳐 성립된 초기 청자 가마로서 청자의 기원과 초기청자의 특징을 밝힐 수 있는 지역으로 중요하다. 이 가마터에는 중국의 월주요(越州窯), 요주요(耀州窯), 여요(汝窯)와의 관계를 살필 수 있는 파편들이 발견된다. 계율리에는 59개소의 가마터가 남아 있는데 용운리에서 볼 수 있는 고식(古式) 파편들도 있으나 대체로 11세기 후반에서 12세기 후반까지의 양식화된 상감청자 조각이 많이 발견된다. 사당리에는 43개소의 가마터가 남아 있는데, 당전

마을에 있는 가마터는 12세기 전반에서 13세기에 이르는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우수한 비색과 상감기법을 보여주는 고려청자 최전성기의 것으로 평가된다. 수동리에는 6개소의 가마터가 남아 있는데, 대체로 14세기 무렵 고려후기의 것으로서, 도자기의 형태와 기법이 다양하며, 유약의 색과 모양도 매우 다채롭다.

대구면에는 고려시대 전 시기에 걸친 가마터가 널려있고, 구조에 있어서도 각 시기의 특색을 잘 보여주고 있다. 1914년부터 가마터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후 도자사 연구에 있어서 학계의 관심이 집중되어 오고 있다. 이곳의 가마터들에 대해서는 1914년의 최초 발견 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걸친 발굴조사('64년, '73~'77년, '81년)와 지표조사('91년8월~'92년2월)가 이루어져 왔는데, 발굴된 요지중 그 원형이 비교적 잘 남아 있던 가마 1기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이전 복원되어 있다. 사당리에는 “고려청자사업소”를 설치('86년)하여 연간 약 5천여점의 청자를 생산하며, 청자도요지전시관을 건립하여 방문객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다. 대구면 일대에서 출토되는 도자기 조각들은 기형(器形)과 기법, 채색 등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고려 전시기(10세기~14세기)의 도요지가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어 고려자기의 발생 및 그 발전과정을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다른 지역에서는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한국도자사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유적이라 할 수 있다.



▲ 이전 복원된 가마터

#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은 강원도의 인제군, 양양군, 속초시에 걸쳐 넓게 펼쳐져 있다. '설악'이란 이름은 주봉인 대청봉이 1년중 5~6개월 동안 눈에 덮여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설악산은 163.6km<sup>2</sup>에 달하는 지역이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최고봉인 높이 1,708미터의 대청봉을 비롯해 1,200미터를 넘는 높은 봉우리들로 이루어져 있다.

연평균 기온이 10°C를 넘지 않는 저온지대에 속하며, 연 강수량은 내설악이 1,000mm 정도, 외설악이 1,300mm 정도이다. 설악산은 화강암과 현무암의 차별침식의 결과로 나타난 웅장한 경관을 보여주고 있다. 설악산의 광대한 자연경관은 이러한 지리적 특징이 그 요인으로 꼽힌다.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은 다양한 식물상의 분포를 보여준다. 천연보호구역 내의 식물은 약 1,013종의 식물이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로 신갈나무, 당단풍나무, 졸참나무, 서어나무 등의 활엽수림과 소나무, 잣나무, 분비나무 등의 침엽수림이 섞여 숲을 이룬다. 그 밖에 금강배나무, 금강봄맞이, 금강소나무, 등대시호, 만리화, 눈설악주목, 설악아구장나무, 설악금강초롱, 솜다리 등 특산물 65종, 눈측백 노랑만병초, 난쟁이붓꽃, 난사초, 한계령풀 등 희귀식물 56종이 보고되어 있다.

▼ 설악산 전경





▲ 금강초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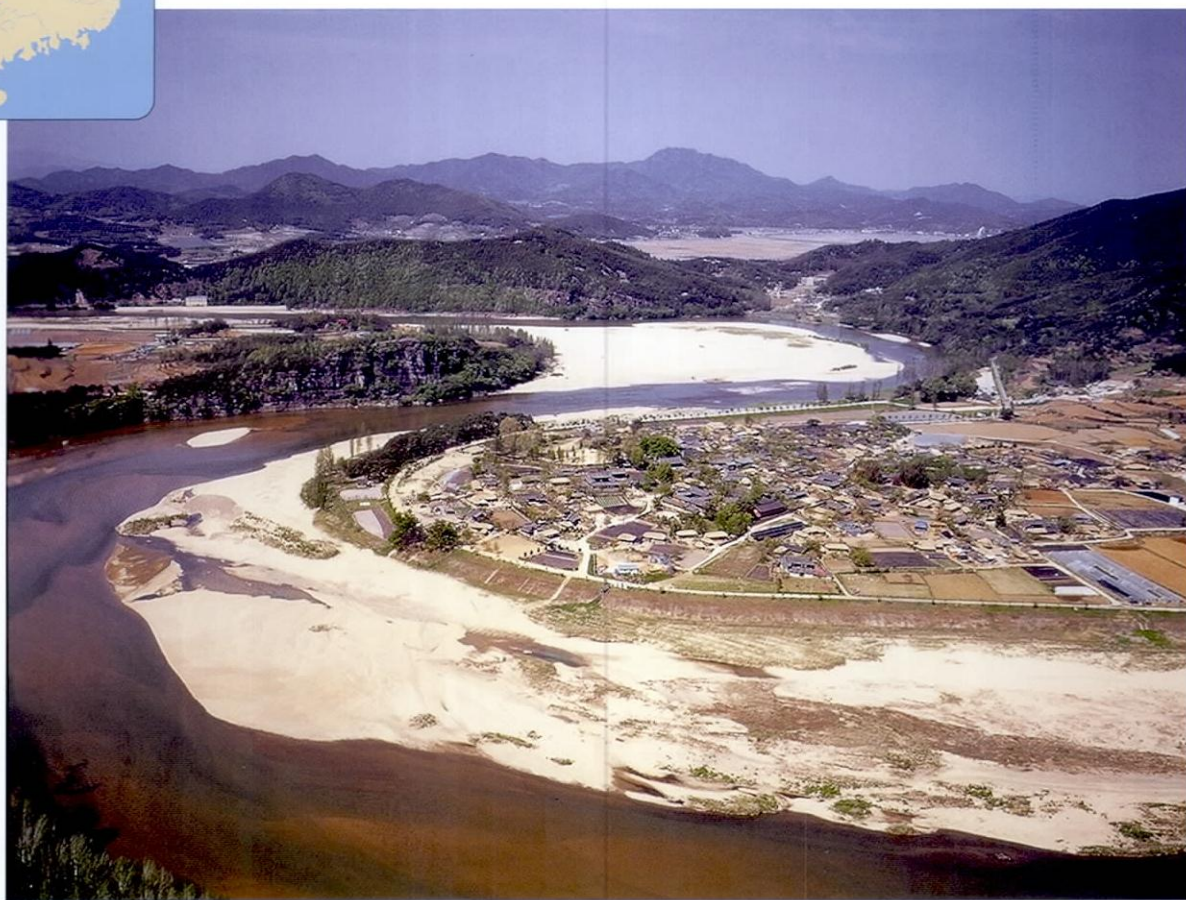
▲ 하늘다람쥐

천연보호구역 내의 동물은 1,562종이 보고되어 있는데 특히 크낙새와 같은 멸종의 위기에 놓여 있는 동물들은 보존해야 할 중요한 가치가 있는 동물들이다. 또한 생물학적으로 중요하면서도 희귀한 열목어나 버들치와 같은 어류들이 이 지역에 서식하고 있다. 이 가운데 반달가슴곰, 사향노루, 산양, 수달, 하늘다람쥐, 황조롱이, 붉은 배새매, 열목어, 어름치 등은 별도의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은 뛰어난 자연경관과 함께 전통사찰인 백담사, 신흥사 등의 문화유산이 있어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다. 이 지역은 1965년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고, 1982년에는 유네스코에 의해 생물권보존 지역으로 설정되었다. 1970년에는 국립공원관리법에 의거,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이후 두차례에 걸쳐 그 면적이 확대되었다.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에는 학술 및 보존 가치가 두드러진 많은 생물종들이 서식하고 있으며 아름다운 자연경관 또한 이 지역의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은 한반도의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많은 동식물의 중요한 서식처이면서 또한 관광지로서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은 보존의 가치가 높은 중요한 자연유산이다.

# 안동 하회마을



▲ 안동 하회마을 전경

**안**동 하회마을은 조선시대 중기인 1600년대부터 풍산 유씨들이 모여 주택과 서원 등을 건축하고 마을을 구성하여 조성된 풍산 유씨의 집성촌으로, 역사적 배경을 지니고 있는 전통 가옥과 하회별신굿 등의 전통문화를 이어가기 위해 보존해야 할 유산이다. 집성촌은 혈연을 집단으로 하는 같은 성씨의 집단들이 일정한 장소에 마을을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집성촌은 조선시대 500여년간에 전국적으로 여러곳에 형성되었으나, 오늘날에는 대부분 소멸되거나 변형됨으로써 그 본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안동하회마을은 풍산유씨의 집성촌으로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고, 이곳에 지어진 양진당과 충효당, 북촌택 등은 건축적으로 빼어난 작품이면서, 당시의 양반주거 문화를 대표하고 있으며, 병산서원은 서원건축의 백미를 이루고 있다. 또 보존된 징비록이나 하회탈 그리고 별신굿과 즐불놀이 또한 이 마을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

이 마을은 낙동강의 원류인 화천(花川)이 동서방향으로 감싸 흐르고, 남으로는 화천과 마주하여 영양 일월산(日月山)의 지맥인 남산이 있고, 서쪽 화천 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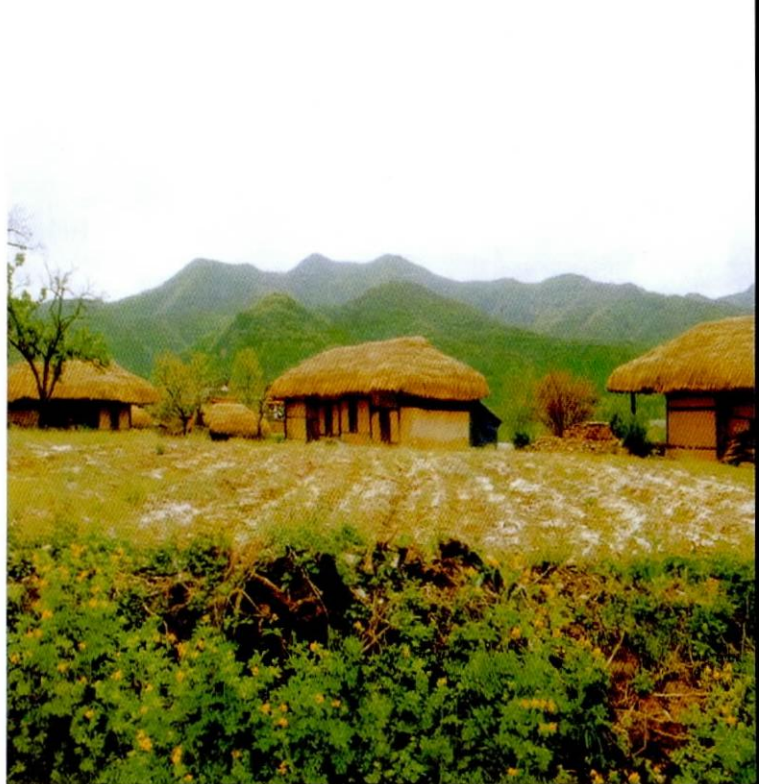
원지산(遠志山)이 있다. 북쪽은 화천 맞은편 대안에 부용대(芙蓉臺)의 암벽이 둘러쳐 있는 자연경관으로 풍수 지리적으로 '연화부수형' 또는 '태극형'이라는 명국으로 알려져 있다.

안동 하회마을은 풍산유씨 14대 종손인 겸암(謙菴) 유운룡(柳雲龍)의 대종가 계열인 겸암파(謙菴波)와 선조때 명재상이었던 서애(西厓)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지파(支派)인 두 집단이 살고 있다. 마을의 동북방향에서 남서방향으로 뻗어 나가는 중앙의 길을 중심으로 북촌과 남촌으로 크게 나누어져 있는데, 북촌을 대표하는 주택으로는 겸암의 주택으로 보물 제306호인 양진당(養眞堂)과 중요민속자료 제84호인 북촌택(北村宅)이 있고, 남촌을 대표하는 주택으로는 보물 제414호인 충효당과 중요민속자료 제90호인 남촌택(南村宅)이 있다. 양진당은 대대로 겸암의 종손이 살아오고 있고, 충효당은 서애의 종손이 대대로 살아오고 있지만, 겸암파와 서애파가 북촌과 남촌을 막론하고 마을 전체에 두루 섞여 살아오고 있다.

이 마을에는 크고 작은 양반집들과 노비들의 주택인 가람집들, 그리고 원지정사(遠志精舍)와 병산서원(屏山書院) 등 독특한 건축들이 자연친화적인 마을구성과 건축배치를 이루면서 산재해 있고, 별신굿과 별신굿때 쓰던 하회탈이 전해오며, 부용대에서 벌어지는 즐불놀이 같은 독특한 민간놀이가 전승되어 온다. 국보 제132호인 징비록(懲毖錄), 보물 제160호 군문등록(軍門謄錄) 등을 위시한 서애선생의 수많은 전적들이 영모각(永慕閣)에 보관되어 있고, 231건에 달하는 교지(教旨)들이 충효당에 소장되어 있다.



▲ 충효당



▲ 안동 하회마을 초가



# 월성 양동마을



▲ 양동마을 전경

양동마을은 신라의 고도(古都) 경주에서 형상강을 따라 동북쪽으로 16km에 위치한 국가중요민속자료 제189호로 지정된 조선시대 마을이다. 옛날에는 지금보다 형상강의 수심이 깊어 선박이 자유롭게 왕래하여 해산물도 풍부하였고 서북쪽에 펼쳐진 안강평야는 구신분제도 사회에서 많은 소작인과 하인들을 거느린 양반들이 살기에는 알맞은 곳이기도 하였다.

현재의 마을 구성은 양민공 손소(襄敏公 孫昭)(1433~1484)가 유복하(柳復河)의 외동딸과 혼인하여 풍수적으로 매우 좋은 길지(吉地)에 월성손씨 종가(서백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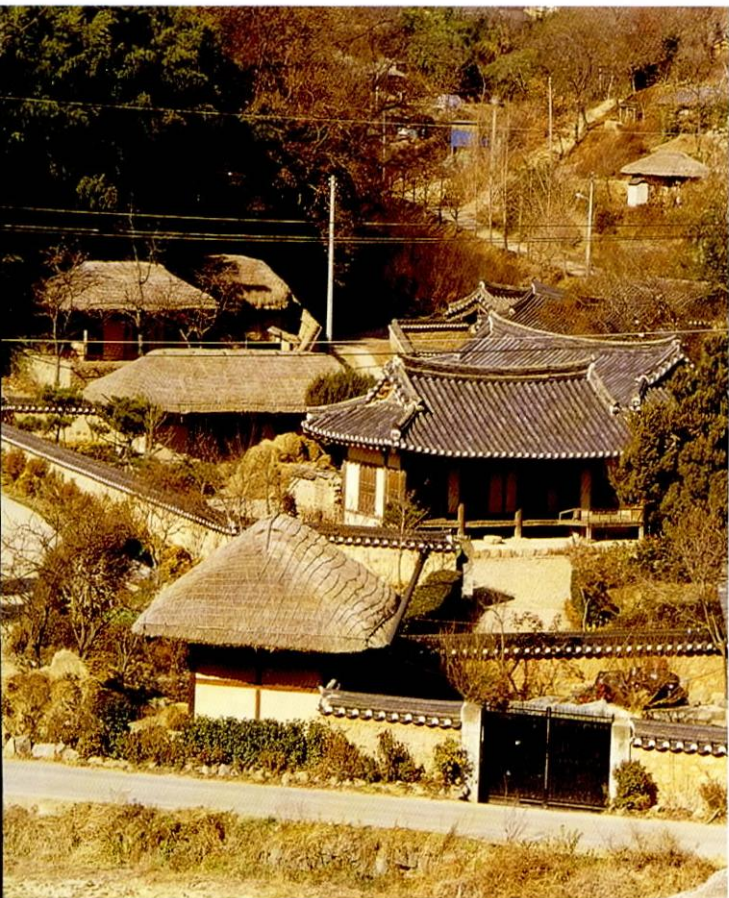
書百堂)를 지으면서 시작되었고 그 후 양민공의 딸은 여강이씨 번(麗江李氏 蕃)에게 출가하여 훗날 동국십팔현(東國十八賢)의 한사람인 이언적(李彦迪)을 낳음으로서 외손이 번성했던 마을이기도 하다.

양동마을에는 월성손씨의 종가인 서백당(西百堂)과 여강이씨의 종가인 무침당(無忝堂)을 비롯하여 관가정(觀稼亭), 향단(香壇) 등 조선시대 양반주택들과 양반들을 모셨던 하인들이 살았던 초가집들, 이향정(二香亭), 심수정(心水亭) 등의 정자들, 그리고 자녀들을 공부시킨 서당인 강학당(講學堂) 등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옛

건물들이 지금도 잘 보존되고 있으며,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민속도 잘 보존되고 있다. 마을 전체의 지세는 산등성이와 골짜기의 구성이 勿자형으로, 작은 산등성이와 골짜기마다 월성순씨, 여강이씨의 종가와 그 파손(派孫)들의 반가(班家)들이 비교적 높은 위치에 자리잡고, 그 아래에는 가람집들이 자리잡은 조선시대 신분제도의 일면을 엿볼 수 있는 공간적인 특징을 보여주는 뿌리깊은 양반문화를 지켜오고 있는 마을이다.

현재 양동마을은 원래의 勿자형 지형을 그대로 유지하여 번성했을 당시의 마을구성 공간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풍수상 穴에 해당하는 위치에 배치된 중요 건물들은 모두 보물(무침당 보물 제411호, 관가정 보물 제442호, 향단 보물 제412호)과 중요민속자료(제23호,

73호, 74호, 75호, 77호, 78호, 79호, 80호, 81호, 82호, 83호)로 개별 지정되어 있으며, 이 마을의 원형 보존을 위하여 1979년 양동마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였고, 그 이후에도 향단 등 중요건물은 실측조사를 통하여 완전한 도면을 작성하였다. 뿐만 아니라 중요민속마을로 지정된 이후 지금까지 문화재청에서 엄격한 고증에 의하여 보수·관리하여 왔으므로 이 마을 본래의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양동마을은 산계곡을 따라 펼쳐진 경관, 자연과 어울려 오랜 전통을 간직한 집들, 양반 계층을 대표할 수 있는 자료들과 유교사상, 관습들 때문에 중요한 가치를 지닌 마을로 평가받고 있다.



▲ 기와집과 초가집의 조화된 모습



▲ 향단

# 남해안일대 공룡화석지



▲ 해남군의 대형 공룡 발자국 화석

한국은 중생대 백악기에 세계 최대 규모의 공룡 발자국화석 산지이며, 매우 다양한 공룡화석이 산출되고 있다. 그리고 매우 넓은 규모이면서 보존상태가 완벽한 공룡알 화석산지, 세계최대규모의 익룡 발자국 화석과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물갈퀴새 발자국 등이 특징적이다. 또한 규화목, 각종 생흔화석과 건열, 연층 등의 퇴적구조와 함께 아름다운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다.

해남 화석지는 약 500여개의 공룡발자국, 400여개의 익룡발자국, 1,000여개의 새발자국, 규화목, 생흔화석

등이 발견된 지역이다. 공룡발자국 화석은 전체적으로 조각류가 많은데 초대형 발자국과 별모양 발자국은 세계적으로 희귀하다. 두 종류의 물갈퀴새 발자국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었다. 특히, 익룡발자국은 아시아에서 처음이자 최대규모인데 세계적 신종으로 세계 학회에 보고되어 있다.

보성 화석지는 보존상태가 완벽한 공룡알 및 공룡알둥지로 약 3km 해안에 걸쳐 넓게 분포되어 있는데 알둥지 17여개에서 공룡알 150여개 산출되었다. 특히, 지름 1.5m인 세계적 규모의 공룡알 둥지도 있다.

부화된 공룡알 껍질이 8겹으로 중첩되어 산출된 현상은 공룡들의 산란습성 및 모성애를 알 수 있다.

화순 화석지는 중생대 백악기 후반기의 육식공룡(수각류) 발자국들이 약 20여개의 매우 긴 보행렬(최대 52m)을 가지고 나타난다. 이곳 공룡발자국은 약 1,000여점 이상으로 육식공룡 발자국의 긴 보행렬로는 세계적으로 희귀하다. 규화목 및 식물화석, 다른 종류의 생흔화석이 다수 발견되고 연흔 건열 등의 퇴적구조가 뛰어나 강가(하안가) 식생연구, 초식공룡의 먹이사슬 연구에 가치가 있다.

여수 화석지는 사도, 추도, 낭도, 적금도, 목도 등 5개 섬 지역의 백악기 퇴적층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다. 지금까지 3,546점의 공룡발자국이 발견되어 양적인 면에서 세계적 규모일 뿐만이 아니라 세계 최대 길이로 평가되는 조각류 공룡발자국 84m 보행렬이 있다. 남부

지방과 일본, 중국을 잇는 범아시아의 고생대 환경을 복원할 수 있는 곳이다.

고성 덕명리 화석산지에서는 총 420여개의 발자국 보행렬에 약 3,800여개의 공룡발자국이 산출되었는데 양적으로나 다양성에 있어서 세계적이다. 그리고 공룡들의 발자국들이 무질서하게 나타나 전형적인 공란 구조를 보이는 곳도 있다. 또한 중생대 조류발자국과 물결자국, 사충리, 건열 등 퇴적구조들이 관찰되고 있어서 당시의 해륙분포, 퇴적환경, 고환경 및 공룡의 생활상을 보여주고 있다.

남해안 일대 공룡화석지는 대부분 바닷가이고 다도해 해상국립공원과 연계되어 있어 잘 보존되고 있으며, '거대한 공룡공원'으로서 한국의 공룡화석지를 대표할 수 있다.



▲ 여수시 추도의 공룡발자국 화석



▶ 보성군의 공룡알 화석

# 제주도 자연유산지구



▲ 한라산 백록담

제주도는 한반도에서 약 130km 남쪽에 위치한 화산도로서 면적은 1,846 km<sup>2</sup>이고 중앙에는 해발 고도 1,950m의 한라산을 중심으로 섬 전체가 흑갈색의 화산암과 화산토로 덮혀있다. 제주도의 화산활동은 약 120만년전부터 시작하였고 산정의 화구호인 “백록담”은 약 2.5만년 전에 형성되었다.

한라산 천연보호구역을 중심으로 하여 동북사면상의 기생화산군(개월오름-바늘오름-산굼부리-거문악-알밤오름-체오름)과 용암동굴지대(반티굴-만장굴-금편사굴-당치물동굴) 서남사면의 법정악-병악-산방산-

송악산 지대와 오백나한 자연경관 등은 제주도의 형성 과정을 이해하는 데 귀중한 자료를 제공하며 자연 유산적 가치가 우수하다.

제주도에는 “오름”이라고 불리는 약 360여개의 측화산이 있어 독특한 경관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산굼부리 분화구는 특이한 모양과 식물상으로 유명하다. 또한 제주도에는 천연용암동굴이 세계적인 규모로 존재하는데, 이중 만장굴은 총길이 8,924m로 세계적 규모의 화산동굴로서, 동굴속 지형 지물들의 규모와 특수성 또한 세계적이며, 당치물 동굴은 석회질 석순

등 2차 생성물이 다양하고 화려하게 발달해 있다. 이러한 제주도의 동굴은 학술, 문화, 산업, 및 관광자원의 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즉 제주도는 수많은 측화산 및 용암동굴의 존재로 인하여 지구의 화산생성과정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매우 큰 학술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

또한 서귀포 해안에는 주상절리대가 발달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패류화석 및 동물화석들이 많이 산출되어 퇴적당시의 고환경에 대한 학술적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서귀포의 문섬과 범섬은 제주도의 기반 암석인 현무암과 달리 독특하게 조면암으로 구성되어 파식대, 주상절리, 해식 동굴 등이 발달하여 경관이 매우 수려하며 다양한 희귀 생물의 서식지로서 알려져 있다.

제주도는 생물다양성보전의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한국산 관속식물의 약 절반이 제주도에 자생하며 약 200여 종의 한국특산종이 제주도에 분포한다. 또한 한국의 멸종위기종 및 보호야생종의 약 1/2이 제주도에 분포한다. 제주도의 정상부에는 빙하시대에 남하하였던 한대성 식물종이 서식하고 있으며, 저지대와 섬의 난대림에도 많은 고유종과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있다. 특히 한라산은 생태계의 보고로서, 한라산에서 자생하고 있는 식물은 총 1,565종('93년 조사)에 이르며, 동물 또한 1,178종에 이른다.

제주도에서 해발 약 800m이상은 국립 공원으로 보호되고 있다. 한라산 국립공원내에서는 보전이 매우 잘 이루어져 등산로와 공원관리시설 등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생태계가 거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서귀포 앞바다의 범섬과 섬섬도 보존상태가 양호하며, 제주도 동북능선 오름 지대도 전체적인 지형과 지하의 동굴은 비교적 원형이 잘 유지되고 있다.



▲ 제주도의 한란



▲ 당처물 동굴 내부모습



▲ 서귀포해안 전경



ISBN 89-8124-176-7 03900